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974-1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차 례



• • •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
--------------------------	---



• • • I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5
---------------------------	---

1. 성 격	5
2. 목 표	5
3. 내 용	6
4. 교수·학습 방법	12
5. 평 가	12



• • • III.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14
------------------------	----

1. 성 격	14
2. 목 표	18
3. 내 용	22
4. 교수·학습 방법	57
5. 평 가	76



• • • I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86
---------------------------	----

참고 문헌	88
-------	----

〈부록〉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94
-------------------	----



외국어(영어)

금정고 이임김이이신이박이김김조
용양현의찬진문병해동완기재미성
한(교육과학기술부)
순(교육과학기술부)
석(교육과학기술부)
갑(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서울교육대학교)
화(경인교육대학교)
윤(한국외국어대학교)
혁(광주교육대학교)
선(당곡초등학교)
주(서울계상초등학교)

-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II.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 I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참고 문헌
〈부록〉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영어교육 이론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영어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8.2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2008.12.26)]. 즉,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모색 및 학습 내용 적정화의 도모 등이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하였다¹⁾.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중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과 함께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였다. 둘째, 교육 현장과 밀착된 수준별 수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차원에서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성취 기준에 있어서 심화 과정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할 기본 학습 내용만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운영 지침으로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데 요구되는 운영 방법, 교재, 평가 등 중요한 요소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 요소 간 연계성 및 위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수준을 조정하고 언어 네 기능 간의 연계성과 학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이래 축적된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장 적용 실태 분석 결과와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 여건에

1) 초등 3·4학년: 주당 1시간(제7차 교육과정)→2시간(2008년 개정 교육과정) / 초등 5·6학년: 주당 2시간(제7차 교육과정)→3시간(2008년 개정 교육과정)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있어서 영어교육 관련 환경, 영어의 필요성,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언급하고, 수준별 학습에 관한 내용을 학교나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다.

또한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하고 그 위계를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기본 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다. 한편, 표현 기능(말하기·쓰기)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이해 기능(듣기·읽기) 성취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수준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계획에서 활용까지를 ‘평가 지침’으로 제시하였으며,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문화를 ‘소재’ 항목에 통합함으로써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하여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별표 1]의 ‘소재’ 항목에 문화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서 담화 특성,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조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이원적 담화값(binary discourse values)을 고려하여 대화에서 인접 쌍(adjacency pairs)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고 예시문의 제시 방식도 보완하였다. 어휘에서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명료하게 개선하고, 기본 어휘 목록은 광범위한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어휘 선정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여 구성하였다.

문서 체제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 공통 체제였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소재’,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기본 어휘 관련 지침과 어휘 목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의 순서 배열과 선정에 대한 기준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참조하였고, 그 체제에 있어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영어과 교육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단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

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둘째, 교육 목표 제시 방식을 변경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착점 교육 목표만 제시하였던 것을, 총괄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에서 수준별 수업 항목을 신설하여 수준별 학급 편성 방법, 교재,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넷째, 평가 부분에서 '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던 항목을 '가. 평가 지침'과 '나.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2008년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된 배경은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 시수 확대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7년도에 3학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영어가 연차적으로 실시된 이래로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언어적, 정의적 효과 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행 상의 문제점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영어교육 내용의 연계 부족,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교육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Ⅱ.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성 격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임을 천명하고,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교육부, 1997).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영어를 국제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 영어교육의 목표도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영어가 국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언어이며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유대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대신 수준별 수업의 운영 원칙이 제시되었다. 즉,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되, 단위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동일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활동 및 과정의 예시 등이 제시되었다.

2

목 표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해당 교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교과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한 것으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발달의 여러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 총괄 목표를 당

해 교과 교육을 통하여 10단계를 이수하였을 때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최소 필수 수준의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과 목표가 학교급별 구분이 아니라 총합적으로 10단계로 제시되었던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괄 목표에 덧붙여 추가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교급별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교과 총괄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로 설정하였다. 그 하위 목표는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며,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라고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며,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 초·중등의 학교 급별로 하위 항목을 두어 각각의 학교급별로 기준 설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3 내 용

내용 개정의 중점에 있어서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내용’을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2008년 초등학교 영어과 시수 확대에 따라, 문자 언어 교육을 다소 보강하였다. 즉, 2008년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시수가 1시간씩 증가함에 따라 학습의 양과 수준에 있어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구어 학습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문자 언어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영어 학습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하였다. 언어 습득 및 학습의 원리를 고려하여

그간 음성 언어 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교육과정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이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한 학기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보다 일년 늦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문자 언어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 및 학교 현장에서 찬반 논의가 있어 왔다. 즉, 현재와 같은 문자 언어 학습의 부자연스러운 지연이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낮추므로 문자 언어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와는 상반되게 문자 언어의 조기 도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영어 학습 부담, 음성 언어 교육의 상대적인 약화, 영어 사교육의 확산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자 언어 학습 시점의 과도한 지연에 따른 영어 학습의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하되,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4학년으로 설정되었던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한 학기 앞당겨 3학년 2학기부터 도입하도록 하고, 문자 언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 3학년에서 문자 학습이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 학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3학년 2학기부터 문자를 도입하되, 그 수준을 학습자가 알파벳 및 단어에 노출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이를 이해 기능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 영어 문자 언어 발달 단계에 준하여 문자 언어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즉, 알파벳, 단어, 문장 읽기 등 영역별로 학습량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되, 어느 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문자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였다. 즉, 영어 입력이 적은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단어 학습 기간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 → 구 → 문장’ 읽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시수 확대 및 음성 언어 중심 교육과정 보완과 연계하여 어휘 수를 소폭 증가시켰으며, 의사소통 관련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을 조정하고 읽기·쓰기 성취 기준도 일부 조정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내용’ 부분의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문화’ 요소가 실제 교과서 집필이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하였다. 타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그에 관련된 생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화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소재 항목에 문화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각 단원의 언어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함으로써 소재 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실제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소재와 연결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문화에 관련된 항목을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으로 분리하여 소재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는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 재료에서 문화 항목으로 제시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 문화’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 생활양식과 언어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범위를 좁혀 각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문화 요소를 교수·학습 활동에 통합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문화와 영어 교육이 분리되어 마치 영어 교육에 문화 요소가 부가적으로 얹혀 있는 것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 분명히 제시되도록 하고,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문화적 내용이 교과서 및 교수·학습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넷째,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많은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타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언어권으로 확대하였다. 즉,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더 나아가, 타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그 범위를 넓혔다.

나.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의사소통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문법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언어 형식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 분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와 예시문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기능 분류로 유목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같이 묶은 것,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이 누락된 것 등이다.

또,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예시문이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예시문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며, 둘째, 의사소통 기능별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이나 통사적 복잡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셋째, 제시된 예시문이 어떤 근거에 의해 대표성을 가지는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재분류하고,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수정·보완하였다.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기능을 그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 중 교과서 분석이나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능을 재분류하고, 그 하위 기능도 의사소통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였다. 또,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의 의사소통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예시문을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그 선정 근거가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교과서 집필자나 현장 교사, 전문가 등이 일부 예시문이 다소 혼동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예시문의 선정이 보다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을 BNC(British National Corp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대상 예시문을 연령, 표준 구어·문어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잘못된 예시문은 삭제했으며, 새로 추가된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예시문의 제시 방식을 수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그 기능에 따라 제시된 문장 수, 난이도, 담화 관계 등의 측면에서 다소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를 개선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기능별로 활용 빈도가 높은 예시문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그 예시문의 수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또, 예시문 중 일부를 비완성형으로 제시하여, 교수·학습 활동에서 융통성있게 예시문이 활용되고, 또한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문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담화 규칙을 적용하여 조응 관계에 있는 기능을 병렬 제시하였으며, 예시문의 통사적 복잡도도 고려하였다.

다. 어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관련 지침 및 기본 어휘 목록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목록이 제6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다소 임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어휘 목록 선정과 선정 절차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즉, 어휘 목록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객관적인 어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을 기본 어휘의 준거로 해서 ① Nation의 MFWL(Most Frequent Word List) 1과 2를 참고한 표제어(headword), ② Nation의 AWL(Academic Word List) 표제어(headword), ③ 어휘 자료 BE(Basic English)와 GSL(General Service List), 사용한 어휘, ④ 제7차 교육과정 어휘 목록, ⑤ 초등학교 권장 어휘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학교 급별 학습 어휘 수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하고, 어휘 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120 낱말, 4학년 120 낱말, 5학년 140 낱말, 6학년 140 낱말로 정함으로써 이전 교육과정보다 소폭 증가시켰다.

라.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시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영어과 성취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s)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료하지 못한 점,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일부 학생 수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된 점, 학년과 학기로 구분한 것이 학교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점, 학교 급 및 학년 간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성취 기준의 구체성·명료성을 확보하였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성취 기준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제6차 교육과정에서 60여 개였던 성취 기준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330여 개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성취 기준의 상세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취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료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성취 기준의 진술문에 사용된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지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에 상황(situations)과 화제(topic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학습 활동의 예를 본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기하였다.
- 성취 기준 관련 표현을 전반적으로 다듬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은 성취 기준을 보다 명료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취 기준의 단계를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재설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은 1개 학년을 1단계로 하고, 다시 각 단계를 학기로 구분하여 2개의 하위 단계(a, b)로 설정하고, 기본과 심화 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기별로 성취 기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취 기준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혼동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별(a, b)로 구성한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간소화하여 위계를 재조정하였다. 또, 기본, 심화로 이원화한 성취 기준 중, 심화 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기본 과정으로 일원화하였다.

셋째, 성취 기준의 언어 기능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 학습 상황에서 표현 기능의 수준이 이해 기능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주 원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제된 교실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교실 밖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진정성 있는 영어(authentic language)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의 표현 기능(말하기·쓰기)의 성취 기준을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 맞도록 이해 기능(듣기, 읽기) 성취 기준보다 그 수준을 다소 낮게 조정하였다. 또,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종적, 횡적 위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년별, 기능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4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첫째,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체제가 학교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내용이 개괄적 안내에 불과하여 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되지 못하고, 셋째, 교사를 위한 교수 지원이 부족하며, 또한 ICT 활용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언어의 네 기능 학습에서 결과보다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체험 중심의 유의미한 활동과 언어 기능 간 연계가 강화된 학습활동을 통해 언어 기능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 및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ICT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상세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5

평 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의

기본 방향이나 방법 등이 모호하여 현장의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 평가 관련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서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 평가 시행 등과 같은 면에서 안내 자료가 되지 못하였다. 또, 평가의 진술 내용이 학교급별로 제시되지 않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데, 두 영역 모두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평가 내용으로는 다소 미흡하였다. 특히, 단계형의 경우 수준별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었다. 이는 수준별 수업의 운영 못지않게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준별 수업의 평가 방법이나 이의 활용 등이 병행되지 않을 때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행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일정 비율의 수행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였다. 영어 과목은 특히 학생들의 영어 수행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채점 등에 관한 정보와 지침 부족으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 방법의 구분을 없애고,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 지침’에는 평가의 기본 방향과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영어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계획 및 활용 등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평가상의 유의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급별로 분리하여,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평가 방법과 이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관련 서술을 교육과 평가의 관계 및 본질에 비추어,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Ⅲ.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1

성 격

‘성격’은 교육과정 문서의 서두에 제시되어, 영어과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목표, 내용, 방법 등 교육과정 전반의 틀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성격’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이에 따르는 영어 능력의 필요성, 초등학교 영어와 중등학교 영어 교과 정의, 특성, 운영과 방법, 궁극적 목표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국가 간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며 국가 간 상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경쟁과 함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동은 개인생활에서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 불려도 될 만큼 국가 간에 교류가 빈번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주변국 및 교역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과 연결된 다른 나라로까지 파급되어 크든 작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은 오늘날 국가 간의 높은 상호 의존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은 국제적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 목표를 향한 국가 간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기술의 발달은 국제 사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돈희(1996)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21세기 사회의 특징을 세계화 시대, 정

보 중심의 생활권, 신념 체제의 다원성, 자민족 정체성, 환경 친화적 세계관으로의 변화 등으로 전망하면서 21세기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개성 신장 교육, 창의력 계발 교육, 직업적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전망되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영어과에서 중요시해 온 개념으로서, 세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향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유지되고 강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의 의사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초·중등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야 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 즉,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폭넓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곧 나라와 나라를 잇는 중요한 가교이자 국가 간, 문화 간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언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Graddol(2006)에 의하면 13,000여 개에 이르는 국제 기구 중에 약 85% 정도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영어로 제작된 미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며, 세계 대중음악 그룹의 99%가 영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약 80%가 영어로 되어 있고, 웹(web) 페이지 중에 약 85%는 영어로 제작되어 있으며, 전 세계 서적 중에서 영어로 출판되는 책은 약 28%에 이른다. 그러므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질 높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EIL(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WL(English as a World Language), EGL(English as a Global Language)로 불리고 있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어가 갖는 기능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을 시사한다. 곧 학생들이 세계인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능력을 기르도록 영어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로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 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문자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중등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본질이 언급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를 기초 영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성 언어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가르치며 그 수준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이다. 기초적인 영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의사소통 기능을 전달하는 표현들로, 예를 들어 인사하기, 감사하기, 요구하기, 사과하기, 동의하기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간단한 표현들을 가리킨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중등학교 영어 학습의 근간을 이루며 기본적인 일상 영어 사용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은 호기심이 강하며, 실생활에서 자신이 겪는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 및 놀이 활동을 주로 하고, 체험 학습을 통하여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초등학교 학생은 쉽게 배우지만 기억이 오래가지 못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수·학습에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며,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 같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본질에 이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교육 방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학습자는 발달 과정상 이론이나 설명보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보다 잘 학습하는 시기에 있으며 호기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적절한 내용으로 초등학교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며, 놀이와 활동을 위주로 한 실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은 집중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므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Halliwell(1992)이 제시하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개별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둘째, 이미 익힌 제한된 언어 자료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이용할 줄 안다.
셋째,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학습 상황보다는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잘 배운다.

넷째, 본능적으로 놀이와 재미를 추구한다. 다섯째,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중등학교의 영어교육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상급 학년의 영어교육 방법은 중등학교 영어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중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영어 학습을 통해 형성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르도록 학습 경험과 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 습득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이 되도록 한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영어 시간 운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과제 혹은 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것은 영어 시간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다. 수준별 교육이 ‘성격’에 명시되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었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비해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학교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되,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의 구분과 운영은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에 있어 심화 과정의 성취 기준은 기본 과정에 합쳐지거나 상위 학년의 기본 과정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하여 기본 과정만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수준별 수업 운영 지침은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영어 교과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므로, 건전한 도덕관과 자주적 시민 정신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국제적 안목과 세계인으로서의 협동심과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영어 교과의 목표뿐 아니라 영어 교과를 통한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도 소홀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인성과 도덕관을 기르고 자주적인 정신을 함양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목 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아 영어 교과의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영어과 교과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발달은 제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한다.
- 교과 목표는 하나의 총괄적 목표와 구체적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교과 총괄 목표는 영어 교과 교육을 통하여 10학년에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최소 필수 수준의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교 급, 학년, 내용 영역 등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영어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진술한다.
 - 다양한 범위의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학습 후 드러내 보여야 할 성취 능력 중심으로 교과 목표를 진술한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근본정신과 내용은 유지하되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되었다. 현장의 의견은 학교급별로 목표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것과 하위목표를 더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괄 목표 아래에, 학교급별 목표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뉘고, 그 아래에 하위 목표가 기술되었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총괄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구두 의사소통 능력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틀어서 말한다.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구두 의사소통 능력으로 제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글을 읽고 정보를 입수하고 글을 통해 정보를 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 능력 배양 외에 또 하나의 목표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 개정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의 목표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 영어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 나.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 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목표’ 항목에서 진술하지 않고 ‘내용’ 속에 ‘성취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 체

계는 총괄 목표 → 학급 급별 목표 및 하위 목표 → 학년별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총괄 목표, 초등학교의 목표, 하위 목표들 간에는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목표인 가항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총괄 목표인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과 종적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하위 목표들 간에도 횡적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의 하위 목표 4개항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어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외국어로 처음 배우게 되면서 느끼는 경험이나 정서는 영어와 영어 학습, 영어권 사람, 영어 사용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른 교과목의 학습 및 상급학교에서의 교과 학습은 물론, 직업 선택에 대한 가치관, 건전한 세계관 형성등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어 학습 동기와 의지가 달라진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길러진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학생들에게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여 상급학교에서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 및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나.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상급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상, 동일한 시간 동안 학습을 하더라도 중등학생의 학습량과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분석적, 연역적 학습에 익숙한 중등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초등학생들은 신체 감각과 다양한 학습 활동 등을 통해 귀납적, 경험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항과 ‘나’항이 초등학교 영어의 정의적인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면 ‘다’항은 인지적인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에서 정의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영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의적인 목표는 인지적인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 학습 효과를 제고해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다’항에 기술된 목표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제한된 어휘 수와 쉬운 구문을 통해 익힘으로써 향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어휘, 문법, 발음, 담화, 대화 전략 등에 대한 지식 및 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능력이어서 학습자가 이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영어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상급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어 학습의 바탕을 마련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국가 간 정보, 물자 교류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영어는 국제어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능력 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 관습,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해당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함께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까지도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할 초등학생들이 자신들과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고 또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영어

를 사용하는 국가뿐 아니라 비영어권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세계의 여러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시민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내 용

‘내용’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내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학년별, 언어 기능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내용 체계’는 언어 기능, 의사소통 활동, 언어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취 기준’ 기술의 기저에 있는 틀과 요소를 밝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 기능을,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해당 과업(task)을 구성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언어 기능)의 특정 성취 기준을, 음성 언어 활동(의사소통 활동) 가운데 특정 의사소통 기능(예, 인사하기)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로, 수준에 적합한 어휘(언어 재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용’ 부분은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체계’를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 체계

(1)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언어 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언어 기능	이해기능	듣기	읽기
	표현기능	말하기	쓰기

우리의 언어 사용 모습을 살펴보면, 언어의 네 기능에서 중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 기능 이상이 통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곧 말하기는 듣기를 전제로 하며, 쓰기는 읽기를 수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예를 들어, 전화를 받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는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에 반응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메모를 하고 메모한 내용을 읽으며 수정한다. 기능의 통합이 우리의 언어 사용 모습이라면 언어의 학습에 있어서도 기능의 통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들은 내용을 쓰거나, 읽은 내용을 말하고, 쓴 글을 읽거나, 들은 정보를 말하는 등의 통합된 활동을 교실에서 충분히 연습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네 기능은 의사소통의 매개가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분되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의 양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나뉜다. 듣기는 음성을 매개로 하는 이해 기능이고, 쓰기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표현 기능이다. 위의 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제시된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각 기능이 서로 배타적이라거나 기능 간의 학습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네 기능은 서로 연관이 되어서 기능 간 전이도 흔히 일어나고,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기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실 수업에서는 기능이 통합된 활동을 도입하여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 권장된다.

(2) 의사소통 활동

-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 활동과 문자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활동	내 용
음성 언어 활동	• 음성 언어 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 제시된 항목 참고 •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중 학년별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
문자 언어 활동	• 문자 언어 활동을 위해서는 【별표 2】에 제시된 항목과 함께 【별표 4】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에 제시된 항목 참고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활동은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하는 음성 언어 활동과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문자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지식, 기계적 연습, 암기를 통해 길러지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

즉 주어진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길러진다. 한편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표현은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의도한 바를 수행하는 의사소통적 기능(function)도 내포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언어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적절한 표현이 제시되어야 한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별표 2]에는 음성 및 문자 언어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과 그 기능을 위한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기능은 크게 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인 태도 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 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시는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영어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은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정성이 있는(authentic)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예시문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과 함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별표 4]에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 활동이란 음성 및 문자 언어 활동을 포함하므로 [별표 4]에 제시된 언어 형식은 읽기나 쓰기와 같은 문자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듣기나 말하기 같은 음성 언어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제시된 언어 형식이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의 모든 표현을 다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언어 형식 이외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형식은 문법 용어를 쓰는 대신 초점이 부각되도록 문장 내에 굵은 글자체로 표기되어 제시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제, 부정문, 의문문, 조동사 등 총 36개의 언어 형식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문장은 각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예시문이므로 문맥에 따라 다양한 문장이 활용될 수 있다.

(3) 언어 재료

-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을 위하여 아래의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참고한다.

영역	내용
소재	• 【별표 1】의 ‘소재’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 •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영역	내용
	•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한 내용 •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언어	•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언어 •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한 언어 • 소리와 문자의 관계, 소리와 의미의 식별, 말의 연결,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및 자연스러운 발화 등에 도움이 되는 언어
어휘	각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3학년: 120 낱말 이내 4학년: 120 낱말 이내 5학년: 140 낱말 이내 6학년: 140 낱말 이내 (누계: 520 낱말 이내) 7학년: 170 낱말 이내 8학년: 280 낱말 이내 9학년: 390 낱말 이내 10학년: 450 낱말 이내 (누계: 1,290 낱말 이내) (총계: 1,810 낱말 이내)
단일 문장의 길이	• 초등학교 3, 4학년: 7 낱말 이내 • 초등학교 5, 6학년: 9 낱말 이내 (단, and, but, 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재’는 【별표 1】에 제시된 것들을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되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고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으며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 상호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의 소재도 중요하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로 위의 네 요소, 곧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외에 ‘문화’ 항목을 따로 두었다. 그리고 ‘문화’의 내용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 양식과 언어 문화’,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여 ‘문화’의 범위를 영어권으로 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문화’ 항목을 삭제하고 ‘소재’에 문화 내용을 추가하였다. 사실 문화는 언어 재료로 명시하기보다는 내용 전반에서 폭넓게 드러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문화’적 특징이나 사실 자체가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소재의 내용으로 밝힐 필요도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근거하여 언어 재료에서 ‘문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재’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별표 1】에 추가된 문화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점은 영어 문화권 뿐 아니라 비영어권, 곧 타문화, 혹은 다양한 문화로 대상 문화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성격’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지위를 인정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의도의 표출이다. 그 밖의 소재 항목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유사하다.

‘언어’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하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으로 하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2008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 ‘단일 문장의 길이’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어휘’는 이전의 다소 임의적인 어휘 선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코퍼스(corpus) 자료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체계적인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3학년 120 낱말, 4학년 120 낱말, 5학년 140 낱말, 6학년 140 낱말로 소폭 증가하였다. 【별표 3】에 제시된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된 어휘 수도 조금 증가되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 어휘 목록에 영국 영어(BE, British English)가 포함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나. 성취 기준

초등 영어 시수 확대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핵심 부분인 성취 기준의 조정과 연계된다. 시수 확대에 의한 성취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에 대한 보완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취 기준을 반복·확장함으로써 나선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상급 학년 성취 기준을 하급 학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추가가 필요한 성취 기준을 추가하였다. 둘째, 읽기·쓰기 성취 기준의 보완이다. 초등학교 단계의 경우 음성 언어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되, 언어 학습 원리에 따라 문자 언어교육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간 격차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급학년 성취 기준을 하급 학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읽기·쓰기 영역에서 추가가 필요한 성취 기준을 추가하였다. 셋째, 성취 기준 진술 체계의 보강이다. 학년별 성취 기준을 조정하여 성취 기준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성취 기준 용어를 보다 체계화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보완하였다.

성취 기준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되어 사용되었는데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에 있어 상세화를 추구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개념으로 다음처럼 정의할 수 있다.

- 교과별로 설정된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서, 주로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된다.
- 각 교과의 하위 내용 영역별로 진술된 것으로서,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내용을 한 단계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내용과 행동(수행 활동, 지녀야 할 특성)이 결합된 형식을 취하며,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으로 형성된다.
- 내용 기준은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을 의미하며, 나아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수행 기준은 학습자가 내용 기준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내용 기준과 관련된 과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주어진 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과제를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로 되어 있던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항목은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제시해야 할 필요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선별하여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로 상세화되었고 이를 단순한 내용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성취 기준’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예로 든 이 성취 기준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은 내용 기준에 해당하며 ‘선별하여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는 수행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내용 기준은 학생에게는 무엇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가, 즉 학습해야 할 내용 목표를 보여주고, 교사에게는 무엇을 지도해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 수행 기준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 곧 도달해야 할 행동 목표를 말해 주는 부분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수행 기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 기준은 그 기준을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척도를 마련함으로써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성취 기준의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과업 또는 활동이 구안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내용 기준이나 수행 기준의 수준을 조금씩 바꾸어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학년별, 언어 기능별 영어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학년

듣기

(가)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을 듣고 식별한다.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로서 분절 음소(segmental phoneme)뿐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 음소(suprasegmental phoneme)가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음절 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초분절 음소의 습득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어 학습 초기부터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챈트나 노래는 영어의 리듬감을 익히게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강세와 억양, 리듬이 들어간 챈트와 노래를 따라 하면서 영어의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익히고 강세와 억양을 내재화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다양한 듣기 자료를 통해 영

어를 접하게 하고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같은 소리가 나는 낱말을 듣고 손을 들게 한다든지 신체로 반응하게 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나) 주변의 친숙한 낱말을 듣고 그 대상을 안다.

초등 영어교육의 목표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학습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주변의 대상들은 의사소통 활동의 기초 자료가 된다. 가족을 부르는 말이나 개인 생활에 관련된 낱말, 교실에서 늘 접하는 물건 등의 이름을 알게 하는 활동과 관련된 활동은 초기 듣기 학습 활동으로 적합하다. 낱말을 들려 줄 때는 고립된 형태로 제시하거나 사전적인 정의를 도입하기보다 그 낱말이 자주 쓰이는 적절한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말로 의미를 번역하여 알려주기보다 실물, 그림, 동작 등을 이용하여 의미를 추측하게 하거나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확인하게 한다.

(다) 인사하기와 같이 쉬운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

인사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대체로 관용적인 표현을 이용하므로 말을 익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인사하는 표현에도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 안부를 묻거나 답하는 등의 보다 세분화된 다양한 인사 방식이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관용적 표현을 상황과 함께 반복하여 듣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유의하고, 이 과정에서 영어 문화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 학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한두 문장으로 된 쉽고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행동한다.

영어를 배우는 어린 학습자에게 전신반응교수법인 TPR(Total Physical Response)은 효과적인 영어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TPR은 간단한 지시나 명령을 듣고 행동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는 어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으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알맞은 방법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과 맥락을 이용하여 다양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학습자는 몸을 움직여 반응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학습에 몰두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호랑이 가라사대 게임(Simon says)’이나 ‘청개구리 게임(Froggy says²⁾)’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마) 한두 문장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을 찾는다.

한두 문장으로 된 말을 듣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찾는다는 의미로서 구체적인 정보 듣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The pencil is on the desk’ 또는 ‘Susan is wearing a red dress’, ‘She has short hair’ 등의 문장을 듣고, 들은 정보와 일치하는 그림을 찾거나 여러 대상 가운데서 고르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바) 쉽고 간단한 챗트나 노래를 듣고 이해한다.

어린 학생들은 챗트나 노래 등의 소리와 리듬 자체를 좋아하며, 스스로 챗트나 노래의 형태를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챗트나 노래는 영어의 리듬, 억양, 발음을 익히는 데도 유용하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쉽고 오래 가게 해 준다. 챗트나 노래는 노래와 동작을 함께 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초등학교 교실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쉽고 간단한 챗트나 노래를 들으면서 의미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게 하거나 내용 이해 여부를 그림으로 묻거나 표현해 보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사)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듣고 이해한다.

2) 교사의 지시에 반대로 반응해야 하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Don’t close your eyes’라고 하면 학생은 눈을 감아야 한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게임이나 놀이는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한다는 인식이 없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영어를 접하고 익히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즉, 게임이나 놀이 안에서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학습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어 습득이 일어나게 되므로, 게임이나 놀이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부합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게임이나 놀이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맥락을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는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하다. 쉽고 기초적인 대화란 어휘와 어법이 쉽고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말한다. 초등학교 영어 학습 초기에는 인지적 부담이 적도록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들려주도록 한다. 일상생활에 관해 묻고 답하는 등의 쉬운 대화를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 여부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대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림을 이용한 반응 나타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말하기

(가)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한다.

‘듣기’ (가)항과 관련 있는 말하기 성취 기준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발음을 통해 영어는 낱말 내에서 강세가 있는 소리가 있으며, 문장 내에서도 강세가 오는 낱말과 약하게 발음하는 낱말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이에 맞게 말하도록 한다.

특히, 챗트나 노래는 영어의 강세, 리듬을 익히기에 좋은 언어 자료로서, 학생들이 챗트나 노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챗트나 노래말을 학생들이 듣고 곧바로 따라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들려준 후 따라 부르게 한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의 CD/DVD-Rom, MP3 파일 등을 통해 반복하여 들려주고 따라 부르게 할 수 있는데 낱말 수준에서부터 점차 문장, 간단한 대화 등의 순으로 들려주어 자연스럽게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익숙해지게 한다. 처음부터 강세, 리듬,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낱말이나 문장을 따로 떼어 기계적으로 연습시키기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 지어 의미 있는 상황에서 말해 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말한다.

‘듣기’의 (나)항과 관련 있는 말하기 성취 기준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반복하여 듣는 가운데 빈번하게 접하는 주변 대상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물이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제시된 대상의 이름을 말해보도록 하거나 ‘This is my dog’처럼 문장을 이용하여 말하게 하는 활동도 도입할 수 있다.

(다) 인사하기와 같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듣기’의 (다)항과 연결되며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기본 기능을 영어로 수행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고 답하는 등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관용적 표현들은 단순히 반복하여 암기하게 하기보다 유의미한 맥락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표현들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낱말이나 한 문장으로 말한다.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해당하는 낱말, 혹은 문장을 말하는 활동은 학습 초기에 쉽게 할 수 있다. 가령 주변의 친숙한 물건이나 사물의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거나

소년/소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He/She is happy’, ‘He/She is sad’ 등의 문장으로 말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실물, 그림을 보고 말하게 하는 것 외에 해당 단어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고 다른 학생들이 맞게 하거나, 조로 나누어 추측하기 등의 게임을 하게 할 수 있다.

(마)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묻고 답한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친숙해서 영어 학습의 초기에 도입하기 적합하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휘와 어법이 쉬운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교사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서 지도한다. 학습자 개개인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활동, 취미, 일상 활동 등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짝과 함께 해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바) 쉽고 간단한 챈트나 노래를 따라 한다.

‘듣기’ (바)항 ‘쉽고 간단한 챈트나 노래를 듣고 이해한다’와 연계되며 챈트나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하는 활동이다. 챈트나 노래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챈트나 노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습 부담감 없이 영어의 리듬과 강세, 억양,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자신감을 심어 주고 성취감을 줄 수도 있다. 챈트나 노래를 할 때는 율동을 따라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율동을 만들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시킨다. 챈트나 노래는 합창하기, 묻고 대답하기, 역할 나누어 부르기, 가사 바꾸어 부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사)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에 참여한다.

게임이나 놀이는 초등학교의 특성에 맞으며, 여기에 참여해서 몰두하는 학생들은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놀이는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게임이나 놀이는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듣고 행동하거나 색칠하기 등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고학년은 빙고 게임이나 말판놀이와 같이 인지적인 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아) 한두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소개하기는 친교 활동을 하거나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의사소통 기능이다. 한두 문장의 영어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하고, 이후에는 가족, 친구들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지도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에 흥미 있게 참여하도록 작은 종이 인형, 막대 인형 또는 장갑 인형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거나, 동물 인형 등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모둠 안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나 감정, 가족이나 친구, 아끼는 물건 또는 좋아하는 운동이나 색깔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읽기

(가)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식별한다.

영어의 알파벳을 글자로 인지하는 것, 즉, 알파벳 인쇄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보고,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동일한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는 것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벳 읽기에서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알파벳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알파벳 카드 맞추기, 숨은 그림에서 알파벳 찾기, 알파벳 짝짓기, 알파벳 모형을 활용한 게임, 알파벳 율동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나)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이해한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철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인식하는 성취 기준이다.

학생들은 여러 단어를 접하면서, 각 철자가 위치에 따라 어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게 된다. 처음에는 단어의 첫 글자를 나타내는 소리만 인식하다가 점차 단어의 끝 철자를 나타내는 소리도 인식하게 되며, 나아가 모음 소리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속적으로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시기에 철자와 소리에 관한 규칙 지도는 꾸준히, 그리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단어를 듣고 첫 소리 알아 맞추기, 특정 소리가 들어간 단어를 고르기, 단어의 그림과 첫 글자 연결하기, 단어를 보고 소리 내어 읽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단어를 제시해야 하는 것에도 유념해야 한다.

(다) 쉽고 간단한 낱말을 따라 읽는다.

교사가 읽어주는 단어를 보면서, 듣고 따라 읽는 것을 의미하는 성취 기준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읽어주거나 들려주는 녹음자료를 들으면서 낱말을 보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처음에는 교사 혹은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다가, 점차 단어를 카드를 보고 소리내어 읽기, 짝과 교대로 단어 읽기, 들은 낱말의 순서대로 번호쓰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그림, 실물, 동작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학생들이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에 제시된 낱말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교사는 학생들이 낱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그림, 실물, 동작 등을 활용한다. 이 때 읽기는 노래나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중에 문자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읽기 활동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음성 언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낱말은 최소의 양만 제시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영어 말하기 게임을 하면서 그림 카드와 함께 단어를 제시

하거나 TPR 활동에서 그림과 단어를 연결시키기, 동작을 보고 일치하는 단어 고르기 등을 할 수 있다.

쓰기

(가)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보고 쓴다.

처음부터 언어의 네 기능을 동시에 같은 양으로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음성 언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를 3학년(3학년 2학기)에서 배우더라도 음성 언어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도입되는 쓰기는 음성 언어 능력을 보조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알파벳을 처음 쓰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쓰기 활동에 관한 것이다. 초기 알파벳 쓰기에서는 학생들이 알파벳을 쓰면서 각 철자의 모양과 특징을 내면화 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철자의 크기, 획의 방향 등 철자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으로 알파벳 트레이싱(점선따라 쓰기), 알파벳 베껴 쓰기, 알파벳 대소문자 중 한 글자 보고 다른 글자 쓰기, 알파벳 릴레이(게임), 몸으로 알파벳 쓰기 등을 하게 하되, 기계적인 쓰기를 반복함으로써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나) 구두로 익힌 낱말을 따라 쓴다.

낱말 베껴 쓰기는 알파벳 쓰기 다음 단계에서 수행한다. 낱말 베껴 쓰기에서 학생들은 낱말을 쓰기 위해 한 글자씩 써내려가면서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익히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단어를 읽고 칠판에 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내면화시키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낱말 쓰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영어의 복잡한 음철 규칙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 유지를 고려해서 한번에 필요 이상의 쓰기 과제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단어를 읽으면서 베껴 쓰기, 점선 연결하여 낱말 만들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낱말 따라 쓰기 등을 들 수 있다.

● 듣기

(가)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는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는 대체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초기 학습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 대화의 이해 여부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그림, 동작 등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도 표현하게 하여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쉽고 간단한 말은 7 단어 이내의 문장으로 구성된 대화나 설명을 의미한다. 내용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하여 친숙한 것으로서 언어 이외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화를 듣고 들은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 그리기, 화제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주변의 사물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맞히기 등의 활동들 예로 들 수 있다.

(다) 쉽고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행동한다.

3학년 듣기 (라)항 ‘한두 문장으로 된 쉽고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행동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4학년에서 ‘쉽고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행동한다’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행동이나 동작으로 반응하는 방법은 한눈에 이해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듣기 활동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이 활동은 수업 중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번 똑같은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단어를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듣기 능력도 신장시키

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교사는 미리 준비한 쉬우면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명령이나 지시문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라)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을 안다.

3학년의 듣기 활동인 (아)항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항목보다 상향 조정된 성취 기준이다. 3학년 듣기가 대화의 화제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이 성취 기준은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듣고 추측하는 등의 수행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는 영어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우리말로 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그림에서 대화의 장소를 고르거나 찾아보게 하는 활동, 시간을 말하거나 시계의 바늘을 그리게 하는 활동, 그림을 완성하는 등의 활동을 도입할 수 있다.

(마) 쉽고 간단한 역할놀이를 듣고 이해한다.

역할놀이를 통해 초등학교 수업에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역할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회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할놀이를 준비하고, 역할놀이의 상황 및 필요한 언어를 전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충분히 연습시킨 후에 모둠별로 역할놀이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또한 역할놀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guiding questions)을 적절하게 하고, 들은 후에는 학생들의 의미 이해를 확인하는 의미 이해 질문(meaning check questions)을 통해 내용 이해를 돕도록 한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단순한 과업을 수행한다.

‘단순한 과업’이란 과업 자체의 인지적 부담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교사가 제공하는 과업(task)의 수준이 적절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면서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으로는 들은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 찾기, 듣고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들은 내용을 그림에서 찾기, 듣고 그림 완성하기, 듣고 간단한 표를 채우거나 완성하기 등이 있다. 이 때 들려주는 내용은 쉽고 명료해야 한다.

(사) 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과거 시제’의 도입을 기술한 성취 기준이다. 과거형 동사 어미 ‘-ed’ 형태에까지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동사뿐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등을 보고 시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기대할 수 있다. ‘I played baseball yesterday’, ‘I went to the park last weekend’ 등 지나간 일에 대해 말하는 간단한 문장을 통해 현재와 과거 시제의 의미 및 형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말하기

(가) 일상생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묻고 답한다.

3학년 말하기 (마)항의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묻고 답한다’와 관련하여 성취 기준이 ‘일상생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확대되었다. 인사와 소개 및 감사하기, 물건 사기와 음식 주문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성취 기준이다. 맥락 속에서 관용적 표현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관련된 문화 지도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물건 사기 표현과 함께 영어 문화권의 화폐를 소개한다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관용적 표현과 함께 식사 예절을 간단히 소개하는 등의 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대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암시되어 있는 내용도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추측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말한다.

3학년 말하기 (라)항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낱말이나 한 문장으로 말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4학년에서는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말한다’로 그 수행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동작이나 그림을 보고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거나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문장을 알아맞히는 등의 게임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보여주며 말하기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시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하여 한두 문장으로 말한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 등 친숙한 대상에 관하여 한두 문장의 길이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다. 가족이나 친구, 아끼는 물건 등에 대해 소개하기, 묘사하기, 설명하기, 문장 릴레이 등의 활동을 도입할 수 있다.

(라) 한두 문장으로 지시나 명령을 한다.

4학년 듣기 (다)항 ‘쉽고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행동한다’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시나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지시나 명령문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교실 영어로 두세 개의 연속된 문장을 이용하여 명령하거나 요청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표현을 자주 들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필요한 행동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마) 쉽고 간단한 역할놀이에 참여하여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다.

역할놀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역할놀이를 통한 말하기로 연결될 수 있다. 역할놀이 참여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익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사

회성,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 및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실 밖의 상황을 교실로 가져올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시 언어 외적인 부분, 곧 표정이나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역할놀이에는 대체로 학습자들이 짝을 이루어 혹은 모둠별로 참여하게 되므로, 학습자들이 역할놀이의 상황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놀이에 필요한 언어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시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상황이나 내용을 도입하며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바) 지나간 일에 관하여 간단히 말한다.

과거형의 문장 도입을 언급했던 듣기 (사)항 ‘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와 관련 있는 말하기 성취 기준이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지나간 일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나간 일이나 겪은 일을 과거형의 동사나 부사 및 부사구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형 동사의 사용 및 적절한 부사나 부사구,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 활동으로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라는 질문에 대하여 짝 활동으로 어제 한 일 말해 보기, 주말에 한 일 말해 보기, 과거의 일을 순서대로 말해 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읽기

(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한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철자와 소리를 대략적으로 인식하다가 점차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3학년에서는 철자와 소리를 간접적으로 인식하다가 4학년에서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첫 글자 소리 인식에서 끝 글자 소리 인식 및 모음 인식 등으로 점차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지 않은 낱말까지 읽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도한

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가 꾸준히 지도해야만 한다. 지나치게 철자와 소리에 관한 규칙을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소리 듣고 단어 찾기, 같은 소리 단어 찾기, 같은 소리 단어끼리 짝짓기, 끝소리로 시작되는 단어 찾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나) 쉽고 간단한 낱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쉽고 간단한 낱말이란 듣거나 말하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낱말이거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어휘 가운데 기본적인 간단한 낱말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음성 지원없이 학생 스스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단어를 듣기, 말하기 등의 학습에서 활용하고 이를 자주 접하게 되면 그 단어들을 자동적으로 읽게 된다. 또한 이 단계는 쉽고 간단한 낱말을 자주 접함으로써 단어의 철자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일견 어휘(sight word)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단어 읽기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어 카드를 활용한 스피드 게임, 일부 철자로 단어 추측하기, 단어 기억하여 말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

단어를 들으면서 읽고, 그림이나 실물 등의 보조 자료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림이나 음성 자료의 도움 없이 낱말의 철자만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번 보았던 단어의 경우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 의미가 바로 이해되는 소위 일견 어휘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읽기의 범위가 단어에서 간단한 구로 확장된다. 학습 활동으로는 카드 게임, 단어를 활용한 수수께끼, 낱말 만들기, 낱말의 철자 말하기 및 여러 단어가 함께 제시된 학습지에서 어구가 되는 단어 찾기, 어구를 듣고 단어를 찾아 연결하기, 문장에서 어구가 되는 것 찾아 읽기 등의 활동을 권장한다.

(라) 들은 것과 일치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찾아 읽는다.

음성 언어로 들은 낱말이나 어구를 찾아내는 것으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연결하는 단계이다.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단어의 소리를 음성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직접 읽어 주거나, 녹음 자료를 활용하여 단어나 어구를 되도록 많이 들려주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의미를 이루는 단위인 어구를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교사가 읽어 주거나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이를 따라 읽게 해야 한다. 음성으로 들은 단어와 철자가 일치하는 것 찾기, 들은 낱말의 순서대로 번호 쓰기 및 자신이 들은 어구 찾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마) 쉽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는다.

단어와 어구 읽기에서 문장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먼저 교사가 강세, 리듬, 억양, 잠시 멈춤(pause) 등에 유의하여 시범 읽기(model reading)를 하면, 학생들은 그에 따라 문장을 소리 내어 읽게 된다. 구두로 익힌 문장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장 및 짧은 문장 위주로 읽기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읽어 주거나 들려주는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문장을 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철자와 소리 관계와 의미를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영어의 강세와 리듬감을 살려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연스러운 어조 및 연음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때 읽기 활동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들이 번갈아 읽기, 모둠별 읽기, 돌아가며 읽기, 큰 소리로 읽기(shouting), 소리내어 읽기, 소리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읽기(mouthing) 등과 같이 읽기 활동에 변화를 준다.

● 쓰기

(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쉬운 낱말을 듣고 쓴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익힌 단어 중에서 쉽고 간단한 단어를 쓰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이 때 구두로 익힌 낱말을 제시하여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터득하게 한다. 특히, 소리 내어 읽으며 쓰는 것이 효과적인데, 너무 많은 쓰기를 하면 흥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배껴 쓰기가 익숙해지면 구두로 익힌 낱말을 외워서 쓰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단어를 듣고 철자 쓰기, 그림과 일치하는 단어의 철자 쓰기, 특정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철자 쓰기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실물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낱말을 완성하여 쓴다.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일치하는 단어를 생각하여 철자로 쓰되, 철자의 일부를 제시하고 빠진 철자를 써넣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때 그림이나 실물 등으로 이해를 돕도록 한다. 학생들이 읽기 및 쓰기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해서 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를 읽기 활동과 연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 우리에 이름표를 붙이는 활동으로 동물 이름을 써보게 하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물의 그림을 보고 낱말을 써넣는 낱말 퍼즐 완성하기, 그림 보고 알맞은 철자를 써서 단어 카드 만들기, 물건 이름표 완성하여 쓰기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짧고 쉬운 낱말을 보고 쓴다.

실물이나 그림의 도움 없이 구두로 배운 단어 중에서 낱말을 쓸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낱말의 철자와 의미까지 이해했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쉽고 간단한 단어를 쓰게 한다. 쓰는 도중 철자가 틀렸더라도 이를 격려하고 철자법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쓰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쓰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므로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물건,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이나 운동 경기를 소재로, 간단한 낱말 퍼즐 및 이름표 붙이기, 빙고 게임, Tic Tac Toe, 낱말 오목놀이 등의 활동을 개인 또는 모둠별로 하도록 지도한다.

● 듣기

(가)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어나 행동이 일어난 순서를 안다.

4학년 듣기 (라)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을 안다’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다만 4학년의 (라)항목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학년에서는 들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일어나 행동이 일어난 순서를 알아내는 활동은 적어도 두 세 개의 문장이 연속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쓰거나 해당되는 그림을 찾기, 뒤섞인 그림을 순서대로 늘어놓기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의 주요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다. 대화의 상황은 물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주요 정보는 무엇인지 등 자신이 들은 대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하는 대화를 듣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다)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간단한’이란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쉽다는 의미 외에 길이가 길지 않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5학년의 경우 문장의 길이는 9 낱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대화뿐 아니라 설명이나 지시 등 대화 이외의 자료도 포함하여 듣는 것을 전제하여, 들은 내용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혹은 추측하여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학생들이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거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으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이해한다.

전화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며 어린 학습자들에게도 때에 따라 필요한 통신 도구이므로 전화 대화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범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전화 대화는 관용적인 표현부터 도입하도록 한다. 가령, ‘Hello?’, ‘This is.....speaking’, ‘May I speak to.....?’ 등 전화 대화에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화 대화의 내용으로는 특정 학년에서 어떤 표현을 익혀야 한다고 제한하지 말고,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시작하여 학년과 수준에 맞추어 점차 더 어려운 표현을 익혀 나가도록 하되, 나선형 배열이 되도록 도입한다.

(마) 실물이나 그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실물과 그림에 관한 설명은 대상의 묘사와 함께 속성이나 특성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문장 이상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다. 간단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 여부를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완성하는 활동, 실물에 관한 설명을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답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바)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소개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간단한 설명’이 내용 기준이므로 설명이 되는 대상은 학습자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 혹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상이 된다. 의사소통이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므로 먼저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초등학교 영어에서의 과업 역시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선정하여 언어와 인지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학습 수준 결정이 필요하다. 학습 활동으로는 지시를 듣고 길 찾아가기, 지도를 보고 목표 지점 발견하기, 그림을 보고 빠진 부분 그려 넣

기, 방향을 지시하는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라 해보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말하기

(가)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묻고 답한다.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적합한 주제를 정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역할놀이나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수 있다. 역할 카드를 주고 카드에 나와 있는대로 대화를 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역할 카드에는 어떤 역할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물건 사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손님과 점원의 역할을 맡아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사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카드를 주고 목적에 맞게 대화를 전개해 나가게 한다. 여기에서는 학습한 표현을 이용한 창의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나)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다.

듣기 (나)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항목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란 개인 및 가정생활과 의식주,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생활습관 및 건강과 오락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일컫는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과 관련된 대화를 듣고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 뒤, 그 대화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 사는 상황의 대화를 듣고 누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얼마에 샀는지 파악하여 간단히 말하거나, 생일 초대에 관한 대화를 듣고 누구의 생일인지, 또는 초대 장소나 시간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게 할 수 있다.

(다) 단순한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순서에 맞게 간단히 말한다.

그림은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유용한 학습 자료이다. 또

한 그림과 관련된 활동은 짧은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이어지는 내용을 담은 그림을 보여주거나 상황을 말로 제시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 이후에 순서에 맞게 말해보도록 지시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길이와 난이도로 말을 하게 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이 분명하고 단순한 그림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몇 장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순서를 정하여 이야기해 보게 하는 활동도 도입할 수 있다.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라) 두세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명령이나 요청을 한다.

‘한두 문장으로 된 지시나 명령을 한다’라는 4학년 말하기 (라)항의 성취 기준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연속된 문장을 이용한 명령이나 요청하기를 의미한다. 교사의 간단한 교실 영어는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어 입력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하면 교실 영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반복하여 듣는 간단한 명령이나 요청이 학습자들의 말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한다.

5학년 듣기 (라)항과 함께 전화 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친교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화를 걸 때와 받을 때의 기초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May I speak to?’, ‘Hello?’, ‘This is speaking’ 등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대화하게 한다.

읽기

(가) 쉽고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4학년 (나)항에서 낱말을 소리내어 읽다가 5학년이 되어 문장 수준에서 학생 혼자 힘으로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4학년 때 단어 읽기나 어구 읽기가 5학년에서 문장 읽기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때 간단하고 쉬운 문장을 제시해야 한다. 소리 내어 읽기는 언어의 리듬, 억양, 끊어 읽기, 문자와 소리·의미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문장 단위의 읽기가 시작되므로 이전 학년에서 단어나 어구 읽기가 부족한 경우는 이를 사전에 보충해 주어야 하고 문장 읽기 학습이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문장보고 읽기, 순서에 맞게 단어 나열하여 문장 완성하여 읽기, 챗트를 이용한 읽기 등이 있다.

(나)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로 이 때 제시되는 문장은 짧고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개별 단어보다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쉽고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습 활동으로는 문장 카드를 활용한 게임,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 맞추기 활동,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 찾기 활동 등이 있다.

(다)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

읽기의 유형 중 소리 내어 읽기(reading aloud)는 영어의 발음과 억양, 리듬을 익히면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익히기에 적합한 유형이고, 묵독(silent reading)은 발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의미 파악에 주력하여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읽기의 대부분이 소리 내어 읽기가 될 것인데, 교사가 문장을 읽어주거나 녹음자료를 들려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때 발음, 억양, 잠시 멈춤(pause)의 지도에 유의하고 의미군(sense group)별로 끊어서 읽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소리 크기 조절하며 읽기, 짝끼리 번갈아 읽기, 모둠별로 읽기,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기, 혼자 읽기 등을 할 수 있다.

(라)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이름이나 표지판 등을 읽는다.

근래에는 거리의 표지판이나 간판 또는 상품과 인물의 이름에 영어가 많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단어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 및 감사 문구, 초대장 등의 인쇄물, 각종 단어가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학습 활동으로는 상품 전단지나 광고에 나온 낱말 읽기, 단어장 만들기, 초대장 또는 감사 카드에 쓰인 낱말 읽기 등이 있다.

쓰기

(가)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쓴다.

실물이나 그림의 도움 없이 낱말이나 어구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쉽고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하고, 일상 생활 가운데 친숙한 단어부터 도입하도록 하며, 어려운 것은 나중에 지도하도록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단어를 듣고 철자 외워 쓰기, 교사가 말해주는 쉬운 단어나 어구를 직접 받아쓰기, 사전에서 찾아 쓰기, 빠진 단어 채워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나)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 문장으로 쓴다.

예시문을 보기로 하여 주어진 실물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그림의 내용을 문장으로 쓴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 기능인 읽기 활동보다 표현 기능인 쓰기 활동에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므로, 쓰기 활동 수준을 읽기 활동 수준보다 약간 낮추어서 설정해야 한다. 이때 제시되는 예시문을 통해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유념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나 안내문 등의 활용도 효과적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예시문을 보고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비슷한 문장 써보기, 문장 중 일부 표현을 미리 제시하고 그림에 알맞은 내용의 문장을 완성하기 등이 있다.

(다) 문장 안에서 인쇄체 대·소문자와 구두점을 바르게 쓴다.

문장의 첫 글자나 고유명사의 첫 글자, 자신을 뜻하는 ‘I’ 등을 대문자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어 쓰기의 기초가 되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쓰고, 단어·구·문장에서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여 써야 한다. 문장이 끝날 때는 반드시 온점을 사용하며 반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문장에 맞는 구두점 찍기, 글을 쓰고 난 후 친구의 글에서 구두점이나 대·소문자 고쳐주기 등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 듣기

(가)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5학년 듣기보다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에서 ‘간단한 말이나 대화’로 확장되었고, 수행 기준은 ‘주요 내용 이해’에서 ‘중심 내용 이해’로 상향 조정되었다. 중심 내용의 이해는 말이나 대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내용의 이해에서 좀 더 발전된 수준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가 요구된다. 초등학생이므로 복잡한 사고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간단한 내용이라도 중심이 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심 내용 이해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교사가 구두로 답을 말해 주거나 짝끼리 상호 점검해 주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고 학습자가 잘못 이해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5학년 (다)항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의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다. 6학년에서는 상황 이해에서 더 나아가 세부 사항 이해로 확장되었다. 세부 사항은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들은 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 대한 묘사를 들으면서 묘사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림의 장소를 추측하여 이해하는 것 등이다.

(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의도나 목적을 이해한다.

영어 듣기는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능동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듣기 자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들으려는 학습 동기를 가져야 한다. 학습자가 들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거나 듣기 활동에 흥미와 동기를 가지게 되면 쉽게 몰입하게 되고 주의 집중을 잘 하며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모든 단어를 다 들겠다는 강박 관념은 긴장과 불안감을 가져 와서 효과적인 듣기 활동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들려주는 내용 중에서 특정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능동적인 듣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들으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학습자에게 준다면 학습자는 목적이 있는 듣기를 하게 되고 능동적인 듣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4학년에서 과거 시제를 도입하였다면, 듣기의 (라)항은 6학년에서 ‘미래’ 시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현재·과거 시제와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현을 듣고 그 의미를 알며 각 표현 형태의 차이와 의미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에 관하여 ‘will’이나 ‘be going to’가 사용된 말을 듣고 의미 이해를 점검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마) 이유를 묻고 답하는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이유를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why’와 ‘because’를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유 묻기에 듣기의 목적을 두었다면 학습자에게 듣기 전이나 듣는 중, 혹은 들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 주고 듣기 연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유 묻고 답하기는 목적을 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이유를 나타내는 낱말이나 문장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바) 대상을 비교하는 쉬운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비교급의 도입을 언급하는 성취 기준이다. 재미있는 내용의 다양한 비교 표현을 이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비교 표현이 사용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그림에 표시하기, 듣고 그림 그리기, 듣고 번호쓰기, 순서 정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다.

(사) 간단한 전화 대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5학년의 듣기 (라)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이해한다’가 발전된 성취 기준이다. 5학년의 경우 전화 대화에 쓰이는 관용적 표현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기에서는 대화의 내용 이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약속장소나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전화 대화의 경우 상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 표정, 몸짓, 눈빛 등의 비언어적 요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언어적 요소에만 의존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고 있다.

말하기

(가)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한다.

5학년 듣기 (나) 항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

다'에 비해 그 수준이 상향되었다. 5학년에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의 파악을 강조한 반면, 6학년에서는 특정한 정보를 의미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한다. 친숙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그 내용을 말해보게 하는 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한다.

6학년 듣기 (사)항 '간단한 전화 대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와 관련되는 항목이다. 자신의 의사를 전화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도움 없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여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관용적 표현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까지 포함하는 말하기 능력을 의미한다.

(다) 주변의 친숙한 대상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4학년 말하기 (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하여 한두 문장으로 말한다'와 관련 있는 항목이다. 주변의 친숙한 대상은 학습자 주변의 사물과 사람, 또는 이와 관련된 소재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대상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은 가장 쉽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생김새, 옷차림, 성격에 대해 말하기, 자신이 사는 집, 교실, 학교 등을 묘사하기 등이 있다.

(라) 일상생활에 관해 이유를 묻는 말에 간단히 답한다.

6학년 듣기의 (마)항 '이유를 묻고 답하는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과 관련된 말하기 성취 기준이다. 이해 기능에 비해 표현 기능 수행의 상대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내용 기준에 '일상생활에 관해'라는 범위를 두었으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는 수준을 설정하였다. 학습 활동으로는 일상생활, 개인생활 등과 관련하여 'why'로 묻는 질문에 'because'로 적절히 응답하는 활동 등을 들을 수 있다.

(마)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하거나 대화한다.

현재와 과거 시제, 미래의 양상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성취 기준이다. 이 성취 기준은 자신이나 상대가 앞으로 할 일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하거나 답하여 정보를 얻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미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한다.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실제 정보로 답하게 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한다. 짝 활동으로 진행할 경우는 짝을 고정하지 않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충분히 연습이 된 후에 짝 활동을 도입하여 학습에 좌절감을 느끼는 학습자가 없도록 한다.

읽기

(가)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읽기의 수준이 단일 문장 단위에서 복수 문장의 집합인 글로 발전된 읽기 능력을 지칭하는 성취 기준이다. 글을 읽고 글 속의 전체적인 상황과 주요 정보 등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학습 활동으로는 메모, 안내문, 감사카드, 초대장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글 중에서 짧고 쉬운 단어로 구성된 글을 읽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물을 자료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나) 개인 생활을 소개하는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한다.

개인 생활과 관련된 익숙한 소재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생활이란 학생에게 매우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로서 가정 및 학교생활, 생활 습관, 건강 및 운동, 취미나 오락 생활에 관한 것 등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글을 읽고 주요 사건이나 상황 말하기, 글과 관계있는 그림 골라 보기, 글을

읽고 주인공이나 장소 찾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그림이나 도표가 포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영어로 된 읽기 자료는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문자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조 자료로서 그림이나 도표는 문자 언어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읽기 자료에는 초등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이나 도표, 수업시간표, 한 주간의 일기도, 학급 내에서 음식이나 운동에 대한 선호도 조사표 등이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글에 제시된 그림, 표, 그래프를 참고하여 미완성 문장을 완성해보게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라) 쉬운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를 이해한다.

문장 단위의 읽기에서 글 읽기로 확장된 성취 기준이다. ‘이야기’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생소한 어휘나 표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간단한 이야기 구조와 짧은 문장 등을 통해 읽기를 확장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성취 기준은 초보 단계의 이야기 읽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친근한 소재를 바탕으로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 대강의 줄거리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간단하고 쉬운 일기나 편지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

쓰기

(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낱말이나 어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한다.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낱말, 어구 등을 지시에 따라 써 넣는 정도의 통제적 글쓰기(controlled writing)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이나 어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통제적 글쓰기 단계에서 흔히 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 성취 기준에 적합한 학습 활동으로는 빈 칸이 있는 문장을 주고 문맥에 맞게 빈 칸을 채우기, ‘보기’를 제시하고 선택하여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간단한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간단한 생일 카드나 감사 카드를 쓴다.

감사 카드나 생일 초대 카드는 초등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쓰기 자료들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카드를 양식에 맞게 써 보도록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생일 카드 만들기, 스승의 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 행사에 맞는 카드를 만들고 영어로 적절한 말 쓰기 등이 가능하다.

(다)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쓴다.

자신이나 가족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쓰는 활동이다. 여기서 자신이나 가족 외에 친구, 학교 등으로 소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항목은 5학년의 (나)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 문장으로 쓴다’와 연결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낱말 → 한 문장 → 복수 문장으로 그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2~3개의 문장으로 간단한 소개 글을 써보게 한다. 학습 활동으로는 가족 앨범 만들기, 나를 소개하는 책 만들기, 가족을 소개하는 신문 만들기 등이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게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한다.

그동안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 이론과 교수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각 교수 방법이 추구하는 원리와 학습 목표, 내용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효과 또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모든 상황과 모든 학습자에게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자, 교수자 등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영어교육의 특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중점 기능,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과 배경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3, 4학년)의 경우 영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학년 2학기부터 문자 언어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문자 언어에 비해 음성 언어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음성 언어를 듣고 말하는 연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활동(예, CD-Rom에 제시된 대화문을 따라하면서 연습하고, 짝과 함께하는 역할극 놀이)을 위주로 지도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활동을 매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일한 표현에 대해 두 세 가지의 다른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강화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TPR과 같은 교수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챈트와 노래, 게임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체적 활동을 적절하게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 능력과 더불어 인지 능력도 발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실제 교수 방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동일한 학습 목표 표현에 대해 듣고, 말하는 연습과 더불어 문자 언어도 동시에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읽기와 쓰기 연습을 같이 접목하는 학습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들의 준비도나 학습 흥미도에 따라 교사의 설명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기계적인 반복 학습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 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 중 영어 사용 기회를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같은 학교, 학년, 학급, 학생들 간에도 학습 능력이나 선호도 등에 대한 개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사는 각 학생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적절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나.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해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놀이나 게임 등은 활동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알맞고 학습 효과도 높기 때문에 각종 연습이나 의사소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가운데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고 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높아지고, 영어 사용과 함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활동의 유형으로는 놀이와 게임 등을 포함하여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학습 목표와 내용, 언어 기능 그리고 학생들의 정의적,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내용 중,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예, 3학년 듣기 ‘한 두 문장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을 찾는다’, 4학년 말하기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 두 문장으로 말한다’, 5학년 읽기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이름이나 표지판 등을 읽는다’, 6학년 쓰기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쓴다’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지도할 경우에는, 놀이와 게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놀이와 게임 혹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 등을 응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한 통합적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수업 중 교사는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에 참여하는 정도와 특징, 그리고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실제로 학습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교수·학습 운영 방법이나 규칙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학습 활동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학생들이 핵심 목표 언어의 올바른 이해나 표현 없이 게임 자체에만 집중하거나, 비언어적 요소에만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동시에 규칙을 준수하면서 능력대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나 게임의 요소, 즉, 행운 등의 불예측성 및 불확실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학습

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심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창의적인 언어 표현도 장려하도록 한다. 또한, 핵심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적절히 제공하고, 실제적 언어 학습에 효과적인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챗트, 노래 등을 통해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강세 박자 언어이고, 영어의 운율적 특징은 의사소통을 좌우한다. 따라서 영어의 운율적 특성 즉, 강세, 리듬, 억양을 영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챗트와 노래는 이와 같은 운율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 챗트와 노래 활용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업 중에 녹음 테이프나 CD/DVD-Rom, 인터넷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챗트와 노래의 유용성을 살리도록 한다. 챗트와 노래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의 관심 여부, 영어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사와 운율적 특성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혹은 새로운 단어가 너무 많은 것들은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강세, 리듬, 억양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리듬, 음악에 맞추어 챗트와 노래를 반복하는 동안 편안하면서도 흥미로운 영어 사용의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가벼운 손동작이나 율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 혹은 간단한 악기 등을 동반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및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도록 한다.

수업 중 학급 편성을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동일한 챗트와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면서도 싫증이 나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표현들의 강세, 리듬, 억양을 부담 없이 내재화하고 오래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운율적 특성은 다소 과장을 하여 제시하거나, 청각적 자료와 더불어 문자 언어나 음보, 기호, 자료를

같이 사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기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챗트와 노래를 즐기는 동안 영어의 운율적 특징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챗트와 노래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며 반복하여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불리고 있는 챗트와 노래는 진정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업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챗트와 노래의 내용 즉, 문화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 그리고 교육적 가치 등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 사용하도록 한다.

라. 듣기는 초기에는 영어의 음운적 특성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듣기는 언어 습득 및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듣기란 귀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리의 의미적 측면에 중점을 둔 청해(聽解)를 뜻하는 개념이다. 즉, 들리는 말소리를 인식하고 그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준비나 행동을 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듣기 지도 방법은 학습자의 숙달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 듣기의 첫 단계는 소리의 식별 단계 즉, 각 소리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는 소리의 원형을 범주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영어는 강세 음절이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강세 박자 언어이므로 음절 박자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는 강세, 리듬과 억양 등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의미의 이해보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조음 위치, 억양 등에 유의하게 함으로써 영어의 음운적 특성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챗트나 노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동일한 소리가 나는 낱말을 듣고 손을 들게 한 다든지 신체로 반응하게 하는 활동 등을 통해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 등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듣기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듣기 이해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듣기 자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상향식 처리(bottom-up

processing)와 하향식 처리(top-down processing)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향식 처리는 청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입력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성, 언어, 구문, 문장을 순서대로 해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소리 자극을 음성 기호로 파악하고, 이 음성적 기호들의 군을 음운적 단위 즉, 음소로 파악하게 된다. 이 음소들의 연속을 단어로 인식하고, 단어들의 연속을 통사적으로 분석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달하게 된다.

반면 하향식 처리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입력을 해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자연 언어에서 음소들이 생략, 축약, 변화되어 그 음성 정보만으로는 단어의 인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음소 인식 이전에 음성 정보에 근거하여 저장된 어휘 목록에서 어휘를 먼저 인식하고 그 뒤에 그 음소들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언어적 맥락과 상황, 주제, 분위기 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의미를 예측하게 된다. 청자가 듣기 정보 처리를 위하여 이 두 가지 방법의 정보 처리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호작용적 처리라고 한다.

상향식 연습 활동의 예로는 문장을 듣고 억양 구별하기, 두 개의 짝이 되는 단어를 듣고 같은 음소 구별하기, 여러 개의 문장을 듣고 같은 동사 형태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어미의 선택적 듣기, 단어와 그림 연결하기, 들려주는 내용 듣고 관련 단어 찾기, 문장을 듣고 해당되는 정보 표시하기, 짧은 대화 듣고 빠진 단어 넣기 등이 있다. 하향식 연습 활동의 예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을 듣고 정서적 반응(interested, happy, surprised or unhappy 등) 구별하기, 한 문장의 요점 파악하기, 대화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 선택하기, 대화 듣고 해당되는 그림 선택하기, 대화 내용의 주제 파악하기 등이 있다. 상호 작용적 연습 활동의 예로는 여러 개의 단어를 듣고 대표하는 단어 연상하기, 친숙한 단어를 인식하고 한 범주에서 관련짓기, 내용을 듣고 지시에 따르기 등이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는 주로 상향식 과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어느 한 가지 과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듣기 지도에 있어서도 음, 단어, 억양, 문법 구조와 같은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는 상향식 듣기 기법과 배경 지식의 활용, 의미의 유도, 총체적 이해, 원문의 해석에 더 중점을 두는 하향식 듣기 기법을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영어의 음운적 특성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상향식 듣기 기법을 주로 활용

하고, 점진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향식 듣기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이해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바. 말하기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유창성을 높여 가도록 지도한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말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해를 위한 듣기와 함께 말하기 기능의 연습이 필요하다.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계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말하기 지도는 통제된 구두 표현 활동, 유도된 구두 표현 활동, 자유 말하기 활동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제된 구두 표현 활동은 학급 전체, 분단 및 개별 활동 등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주도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구두로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화문 따라 하기, 문형 대체 연습하기, 짧은 구어 표현 말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말하기 활동의 기초를 제공하여 정확한 영어 표현을 익히게 할 수 있으나 이런 활동만으로는 영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도된 구두 표현 활동은 통제된 구두 표현 활동 직후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언어 구조를 전체, 모둠, 집단, 짝 및 개별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주로 교사의 유도에 의해 활동하는 제한적 말하기 연습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제한하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는 것이 좋다.

자유 말하기 활동은 학생들이 통제되거나 유도된 상황 속에서 익혔던 언어 및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총동원하여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는 통제 없는 자유로운 말하기 연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 단계에서는 언어 자체의 연습보다는 의미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 전개되므로 언어가 진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말하기 초기에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발화를 지도하고 발화 오류는 의미가 통하면 허용하는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오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의미 전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실제로 발화를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과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발화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유창성을 높여 가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에 보다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사. 말하기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을 피하고, 듣기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말하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활용한 듣기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한 다양한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말하기 지도 시 연습 단계에서의 적절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오류 및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피하면서 유창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정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유창한 의사소통만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화석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한편 즉각적인 오류의 수정은 오류를 범한 학생으로 하여금 발화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이고 즉각적인 오류 수정보다는 학습 정리 단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오류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습 단계에서 정확성에 중점을 둔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모국어를 배우는 시기의 어린이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또박또박 말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박또박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발화 단위로 말을 하고, 문법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으로 말하며, 또한 여러 번 반복을 하며 말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언어의 의미와 규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 연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정확한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부정확한 반응

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 교사의 말을 따라 하기 등의 방법으로 수정해 줄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반응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난으로서가 아닌, 긍정적인 교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학생이 틀린 부분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 읽기는 초등 영어 학습 환경과 초보자의 읽기 학습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음성 언어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점진적으로 문자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읽기란 글자 자체를 읽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언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초등학교 영어 읽기 지도의 목적도 단순히 알파벳 발음 체계의 원칙들을 이용하여 단어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읽기 학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고력과 비판력을 신장시켜 주고 나아가 관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초등학교 영어 읽기 지도에서는 학생들이 알파벳 대소문자를 식별하고 각 알파벳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어나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음성 언어로 이미 익힌 내용을 문자 언어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읽기 지도를 할 때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문자로 읽어 보도록 하되, 그 이외의 내용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알맞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 지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문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 주가 되게 한다. 단어를 따라 읽을 때에도 그림 카드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단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알파벳 대소문자를 식별할 수 있고 음성 언어로 익힌 단어들을 따라 읽을 수 있게 되면, 이후에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대상의 이름을 익히는 것을 지도한다. 이 때 영어 낱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가능한 한 그림과 실물을 이용하거나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써 보다 쉽게 낱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낱말의 경우는 우리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쉽고 간단한 단어를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음으로는 쉽고 간단한 어구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쉽고 간단한 어구란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어구나 초등학교 사용 권장 기본 어휘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어구들을 말한다. 이때에도 그림이나 실물을 이용하거나, 상황 또는 문맥을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읽기 지도에서 분석적인 문법 학습보다는 어구나 문장과 같은 덩어리 상태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음성으로 익힌 어구나 문장을 읽는 것은 문자와 소리와 관계를 파악하고 장차 글을 읽기 위한 기초를 쌓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장의 형태보다는 그 형태가 가지는 의미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미 음성 언어로 익힌 문자 읽기는 훌륭한 읽기 활동이 된다.

문장 단위의 읽기 활동 후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쉬운 글 읽기로 확장한다. 간단한 문장의 의미 파악이나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의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읽기는 음성 언어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문자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자. 읽기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소리와 철자 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혀 문자 언어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점차 읽기의 즐거움을 알도록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읽기 지도를 하는 접근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분적인 것을 먼저 학습한 후,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는 상향식 접근법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언어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하향식 접근법이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학습자가 읽는 글 속의 문자와 단어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고, 음소와 문자소의 대응 관계를 인식하며, 그 다음에는 어휘, 문법, 의미, 담화 속의 관계 등을 글 속에서 차례대로 파악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상향식 교수법의 하나인 음철법(phonics) 지도는 알파벳과 소리의 관계를 먼저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하향식 접근법은 글 자체의 언어적 요소보다는 글이 포함하고 있는 맥락에 주로 의존하여 가설과 예측을 하는, 보다 높은 인지 과정을 통해 읽기가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하향식 접근법에서는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방법보다 학습자가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 과정 중에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읽기 전략에 속한다. 읽기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소리와 철자 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읽기 학습 방법의 예로는 각운을 이루는 학습된 단어 cat/bat/mat을 활용하여 c, b, m의 철자와 소리관계를 알기, 이를 읽게 하기, 여러 단어 카드를 나열해 놓고 교사가 불러 주는 카드 찾기, 학습지를 활용한 단어 찾기, 단어 따라 읽기 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철자와 단어를 익히게 된다. 특히, 초기 단계의 읽기 학습에서는 단어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보다 쉽게 뜻을 알게 함으로써 단어가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한다.

이보다 상급 수준에서는 짧고 간단한 지시문 읽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단어나 문장을 읽고 그림과 일치하는 카드 찾기, 만화 읽기, 짝끼리 질문과 응답이 따로 적힌 종이를 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구문을 활용한 노래나 챗트하기, 문장을 쓴 후 몇 조각으로 나눈 후 문장을 다시 순서대로 맞추기,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동물 등 유의미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말한 것을 교사가 받아 적는 것을 보도록 하거나 쉽고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하는 활동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자 언어에 노출이 되도록 하며 또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문자 언어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한다.

차. 쓰기는 초기에는 철자 및 구두점에 유의하여 지도하고, 점차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영어 쓰기의 초기 활동은 알파벳 쓰기이다. 영어의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 인쇄체와 필기체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어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로 다른 네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혼란을 주게 되므로 가급적 인쇄체의 대·소문자만을 가르치도록 한다. 학생들이 알파벳 쓰기를 익히고 나서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정확한 철자의 사용과 영어의 문장이나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호들의 적절한 사용법을 처음부터 잘 지도해야 한다.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념시켜 학생들이 정확하게 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말을 할 때에는 표정, 말의 억양, 강세 등을 사용하여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대신 글에서는 의문이나 감탄의 표현 등을 해당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에는 문장 부호를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알파벳을 익히고 난 후에 낱말을 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먼저 지도한다. 요일, 달, 도시, 나라, 주 이름, 호칭(Mr., Mrs., Miss, Ms., Dr.) 등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의 범주를 가르치며 문장의 첫 글자와 나(I)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지도한다.

위와 같이 쓰기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점차 학생들에게 의미가 분명한 문장을 쓰도록 한다. 짧게는 'Look!'과 같은 하나의 단어로도 문장을 구성하기도 하며, 대체로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 문장을 이루는데, 이때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와 같은 기호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즉, 문장으로 완성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반드시 찍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한다.

문장 부호의 사용에 대한 지도와 함께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순에 맞게 글쓰기, be동사의 일치, 시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일 때 동사에 '-(e)s'를 붙이는 것 등 문법적인 문제들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습득하도록 하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점차 의미의 표현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자유 쓰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쓰기 지도의 초기에는 철자 및 구두점과 같은 쓰기의 기초 사항을 정확히 지도하며, 점차적으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카. 쓰기는 유의미한 활동을 통하여 쓰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자 언어는 모든 교육의 중요한 매체로서, 읽기와 더불어 쓰기는 영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왜냐하면 쓰기는 학습자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다른 언어 기능의 학습을 강화하고 통합해 주며, 언어 활동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따라 쓰기만 강요하다보면 학생들이 쓰기에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 학습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쓰기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목적을 갖고 글을 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 및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초대장 쓰기, 편지쓰기, 일기 쓰기, 미니북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게 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쓰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언어 지도와 함께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를 적절하게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

21세기에는 모국어를 달리하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제어로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다. 영어를 통해 타 문화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타 문화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Cross-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한다.

문화 교육에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어 문화권뿐 아니라 비영어권의 다양한 문화도 포함시키되 학습 내용과 연관시켜서 문화가 교수·학습 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영어 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거나, 교사 혹은 학생이 해외여행 중에 체험한 문화적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타 문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여러 국가의 국기나 기념비 등의 문화적 상징물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국가의 인사법이나 식사 예절 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 지도 방법의 예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특정 인종, 국가나 문화에 대해 정형화된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교육을 통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수업 지도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표 언어가 영어라고 해서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인식하거나, 비영어권 문화를 비하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지도한다. 또 문화권에 따라 예절이나 호칭에 대한 관습이 다르므로, 이러한 관습들을 특정 문화의 가치 기준에서 평가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국수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며, 문화적 배경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한다. 특히 음식, 옷, 명절과 같은 명시적 문화(visible culture) 뿐 아니라 태도, 사고방식, 믿음과 같은 비명시적 문화(invisible culture)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영어로 소개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미 문화권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과 우리의 추석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게 하고, 추석의 음식이나 놀이 등을 영어로 설명하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나 신화 등을 영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해 보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파. 수업은 가급적 영어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EI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상황에서는 영어 수업 시간 외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영어 수업 시수도 제한되어 있어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가급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경우에는 수업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입력을 늘릴 수 있으며, 학생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영어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언어적 능력의 향상과 함께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사용하는 영어 입력의 양뿐만 아니라 영어의 질과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사가 교실 영어(Classroom English)를 사용할 경우, 교사 스스로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자이며 언어 입력 제공자로서 자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제공되는 영어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영어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가급적 쉽고 간단한 교실 영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을 제공한다. 또한 교과 내용과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수행 중인 과업을 고려하여 동일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교실 영어는 비언어적인 자료나 방법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언어 입력과 함께 시청각 자료 등의 보조 자료나 교사의 몸짓과 손짓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 영어를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한국어 설명이나 지시가 수업 중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되 한국어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교사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영어가 학생들의 유의미한 발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의미 위주의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교류와 함께 의미와 정보 교환을 시도하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유도한다.

교사는 지나치게 어려운 영어를 구사하거나 너무 많은 양의 영어를 제공함으로써 교실 담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들의 영어 발화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준비가 잘 안된 학생들도 적절한 언어 사용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정의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영어 사용에 대한 친숙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

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의 활용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EIL 상황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등 교육적 매체로서의 순기능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실 현장에서도 필요한 기기, 인터넷 망 등의 학습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영어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의 활용도와 효율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영어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인쇄된 문자 위주의 자료와 함께 이미지,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여러 가지의 매체를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역동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의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CD/DVD-Rom, 비디오, 인터넷 자료 등의 적절한 사용은 한 가지 기능의 집중적인 연습뿐 아니라 기능 통합 연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읽기 성취 기준 중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식별하여 읽는다’와 쓰기 성취 기준 중 ‘문장 안에서 인쇄체 대·소문자와 구두점을 바르게 쓴다’와 관련해서, 컴퓨터의 자판을 익히고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치며 읽는 연습 활동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쓰기의 성취 기준 중 ‘간단한 생일 카드나 감사 카드를 쓴다’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용 웹 사이트나 실제 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간단한 생일잔치 초대글, 축하 인사말이나 감사말 등을 작성하고, 카드로 인쇄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기 등의 활동으로 확장해 보게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를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 도구와 보조 기재의 역할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어 학습의 체험 학습의 수단으로 확대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웹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목표, 내용과 관련 있는 영어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 간에 학습한 대화를 활용하여 화상 채팅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 간의 학습뿐 아니라 다자 간 상호 작용을 통한 영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수업 전후로도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여 간단한 정보를 찾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리는 과제나, 간단한 이메일을 써서 친구의

글에 답글 올리기, 혹은 영어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퍼즐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영어 사용의 진정성도 높이고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학습을 활성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의하도록 한다. 학습 내용과 관계없는 음향이나 화상 위주로 개발되었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사는 수시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유익한 웹 사이트를 선별하는 등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에 유의한다.

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학습과 협력 학습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이나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영어 학습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한다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습 결손이 누적될 수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인 기능 연습과 함께 개별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 학생과 학생 간의 활동, 학생과 교사와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조화롭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개별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인 개별 학습과 수준별 협력 학습을 적절히 통합하여 수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개별 학습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별 학습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학습 속도를 조정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각 개인에게는 최적의 교수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학습자 혼자 하는 개별 학습만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부정적 측면에서의 자기중심적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 방법을 구안한다.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실제 영어 사용 능력의 수준은 초등학생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다양화하여 각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어 학습 교재는 학습 자료뿐 아니라 교수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 교재는 첫째, 언어적·내용적 입력과 산출물을 포함한 영어 학습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둘째,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학습 상황과 도구적 수단을 포함하는 교수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 교재의 전체 구성 체계와 더불어 각 단원의 구성, 언어적 내용, 소재, 어휘, 학습 활동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여 수업을 계획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업 계획의 완수를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학습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정형화된 학습 자료나 교수 방법의 사용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습 진전과 성취 능력, 그리고 인지적 관심과 흥미 또는 적성이나 진로에 적합하게 교재의 학습 진도를 조절하며, 학습 교재의 내용도 재구성, 편집 혹은 변용하여 학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자료나 게임, 노래 등은 자연스러운 학습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 수업 중에 사용할 경우 언어 입력으로서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방법으로서의 적합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보조 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거나 복잡한 교재보다는 학생들의 실제적 언어 학습 체험에 효과를 주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

다. 학습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조직하고, 이를 수준별 활동 및 과업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라도 그 인지 수준의 개인차는 매우 크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학습 능력 및 학습 속도가 다르므로 교사는 같은 학습 주제라도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조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진취적이며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 시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의 제시가 중요하다.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지도에 임해야 학생들이 영어 학습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되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비교적 덜 갖고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활동에 따라 개별 및 소집단 지도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단원의 학습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활동의 유형을 개별 지도 및 소집단 지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 학습에서는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집단의 응집성과 개인의 책무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모둠원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 결과를 증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소집단 학습을 위한 모둠은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동질 집단으로 구성할 경우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합한 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 능률이 오를 수 있으며, 교사도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된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질 집단으로 구성할 경우 각 집단은 개성, 특기, 잠재 능력, 언어 능력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므로, 학생들은 각자의 재능을 이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과 학생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집단 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한다.

(1) 평가 지침

수업은 매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여러 업무를 함께 하다 보면 적절한 계획 수립 없이 수업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영어 과목의 경우 수업 시간이나 평가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특히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적절한 영어 수업의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수업 목표와 수업의 내용 및 방법, 평가가 일치된다면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준하여 평가 목표를 설정한 후에 평가를 시행한다.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를 계획할 때에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에 앞서 영어의 어떤 기능에 관한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평가 목표를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목표를 목록으로 작성할 때, 일반적 목표와 함께 교과서의 학습 목표 및 수업 목표에 근거한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평가 문항과 절차를 개발한다. 각 평가 목표에 대하여 문항의 종류나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평가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능력을 고루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 학습자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며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이나 실제의 의사소통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생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해석 및 판정한다.

평가를 학습 활동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평가를 하는 시기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르친 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정도 학습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평가를 계획할 때는 학습자 개인별 평가를 할 것인지 학습자 전체를 평가할 것인지, 또한 학생 개개인 혹은 학생 전체에게 기대하는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염두에 두도록 한다.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평가의 결과를 의미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 했는지, 교사가 기대한 바와 학습자들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진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한 후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에 적용한다.

평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어느 정도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진단을 근거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진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한 후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수업 지도 방법 및 내용을 계획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다.

(라) 형성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수업 지도 중 이루어지는 평가를 크게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와 총괄 평가(summative assessmen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성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평가의 결과가 다음 학습이나 지도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형성 평가에 해당하는 예로는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과업 수행 여부에 대한 관찰, 질문,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과제 점검, 학습지 활동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총괄 평가(혹은 형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는 일정 단위의 지도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로,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흔히 지필고사로 이루어지는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이에 해당한다(McMillan, 2006). 다양한 방법의 형성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마) 말하기 및 쓰기와 같은 언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수행 평가를 실시한다.

말하기 및 쓰기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평가(indirect test)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직접 평가(direct test)가 적절하다. 수행 평가란 학습자가 습득된 지식이나 기능의 직접적인 사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지에 의한 간접적인 측정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측정에 의하여 얻은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평가(direct assessment), 전통적인 지필 평가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대안 평가(alternative assessment), 실제적인 맥락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참 평가(authentic assessment)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Blum과 Arter, 1996).

(바)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목표, 평가 문항 유형,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실시한다.

어떠한 목적을 가진 평가이든,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의미 있게 점검하려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타당도와 신뢰도이다. 수행 평가는 정답이 있는 평가가 아니므로 평가자의 일관적인 평가와 학습자 이해를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타당도란 평가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하며 수행 평가의 경우 타당도는 평가의 목표와 평가 내용 및 평가 문항 유형이 얼마나 일치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신뢰도란 측정 결과의 일관성으로 수행 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㉗ 평가 요인

- 평가에 제시된 내용: 평가에 선택된 지문이나 대화의 내용이 학습자에게 익숙한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보다는 배경 지식이 평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 평가 항목의 모호성: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듯이 평가에 제시된 지문이나 대화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및 응답이 한 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어떻게 결과 처리를 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도록 한다.
- 평가에서 주어지는 지시의 명확성: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 및 요구되는 응답이 잘 계획된다고 해도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평가의 형태: 학습자들의 평가 형태에 대한 친숙도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자가 평가 형태에 익숙한 경우 평가 형태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평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의 길이: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 수준에 맞추어 평가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평가의 목적에 맞도록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㉘ 상황적 요인

- 평가관의 태도 및 지시 방법: 제시된 지시문에 평가관이 개인적 해석을 추가하는 경우, 학습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실 평가가 아닌 학교 단위의 평가에서 여러 집단의 평가 간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 평가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평가관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단호함 등 비언어적 표현에 의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반응이 달라져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관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 평가받는 장소의 조명, 음향, 안락감: 평가 장소가 익숙하지 않거나, 음향 기기가 순간적으로 오작동하거나, 학습자의 위치에 따라 소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평가 장소 안팎에서 나는 소음: 평가에 대한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었어도 평가

시 소음에 의하여 학습자의 집중도가 영향을 받는 경우, 혹은 소음으로 인하여 들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듣기 평가를 할 경우엔 소음에 특히 유의한다.

㉔ 개인적 요인

- 평가받는 학습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평가를 받는 학습자의 경우 긴장하기 마련인데 소심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신체 및 심리적 상태에 의하여 영향을 더욱 쉽게 받으므로 학습자가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를 평가 장소나 평가 방식에 익숙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받는 학습자의 영어 사용 능력, 일반적인 지적 능력(IQ): 최근 외국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돌아온 학습자가 증가하여, 국내에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만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만을 평가하므로 교사가 미리 안내하는 영어 평가에서는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의욕을 고무해야 한다.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목표, 내용, 평가 문항 유형,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여 실시한다.

(사)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평가는 학습 과정의 일부이므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무엇을 평가하는지, 왜 평가하는지, 평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려주고 만족할 만한 평가 결과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준다.

의사소통 능력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얻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능력의 평

가 또한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한 번으로 끝내는’ 시험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표어의 발전 상황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주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적인 파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평가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에는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물을 수집한 것이 포함되는데, 교실에서 시행한 시험의 결과, 작문 샘플, 녹음테이프 등의 결과물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학생의 노력, 발달 정도, 혹은 성취도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

결과물만으로 볼 수 없는 것, 학습 과정상의 어려움, 특정 영역 수행 가능 여부, 자신감 등에 대한 평가로는 자기 평가가 적절하다. 자기 평가는 각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스스로 학습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학습 계획이나 학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평가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소홀히 여기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로는 학습자간의 상호 평가가 유용하다. 학습 과정상의 여러 학습 활동상의 태도, 수행 정도, 목소리의 크기 등 교사의 관찰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2) 평가상의 유의점

의사소통 능력(Canale과 Swain, 1980)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노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술하는 상세한 틀의 제시로 이어졌으며(Bachman과 Palmer, 1996), 이 틀을 바탕으로 평가 과업을 실생활의 언어 사용에 맞추는 원칙이 최근 언어 평가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영어 교육을 통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네 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려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다루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평가에 심리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단계는 극히 초보적인 영어 습득 단계이므로 평가를 학습 활동의 연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적당한 만족감 내지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평가를 통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였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 주며, 나아가 더 학습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달라질 수 있다. 혼자 응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응답하는 것이, 응답지에 응답하는 것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간단한 표현으로 응답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한 번 평가받는 것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평가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감이 적다.

초등학교에서 흔히 활용되는 TPR을 이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해서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사용하였던 명령문을 이용하여 지시를 내린 후, 교사가 동작을 직접 해 보이거나 동작이 표현된 그림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제시된 동작이나 그림이 교사의 명령과 일치하는지를 표현하게 하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급 전체가 ‘Yes/No’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평가 방식에 익숙하게 한다. 이에 대해 심리적 부담이 적어지면 <표 III-1>과 같은 Yes/No 응답지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I-1> Yes/No 응답지

1	Yes	No
2	Yes	No
3	Yes	No
4	Yes	No
5	Yes	No

(나) 초등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진단한다.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다양한 평가 과업을 적절한 난이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문자 언어 도입 이전에는 듣고 표현하기, 보고 표현하기가 적합하며, 점진적으로 간단한 내용을 읽거나 듣거나 보고 간단하게 말로 응답하기, 간단한 내용을 읽거나 듣거나 보고 간단하게 글로 응답하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평가 시, 총괄 평가만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게 되는 반면, 형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진단이 학습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피드백 받을 수 있어 교수·학습에 효율적이다.

(다)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하되 과정 평가 위주로 실시한다.

교실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평가 과업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취 정도를 기술한 진술문을 왼쪽에 두고,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과업을 오른쪽에 나열하는 방식의 평가 명세서를 평가에 앞서 작성해 보면, 특정 내용이나 특정 방식의 평가 과업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에서도 역할놀이와 같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의사소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관찰 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한다.

관찰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정확한 관찰에 의하여 피드백이 주어질 때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관찰을 바탕으로 평가와 점검을 할 때는 교사나 학습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수업 관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 큰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오히려 교육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교사나 학습자가 관찰 자체에 시간적 혹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교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비공식적인 형태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평가나 점검이 이루어

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찰을 평가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관찰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먼저 관찰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관찰할 내용을 정하고, 모든 학습자를 관찰하기 위하여 몇 번의 관찰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모든 학습자를 고르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번의 관찰에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계획해 둔다.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의 관찰에 의하여 특정 학습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있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며 관찰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관찰결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 기술

간단한 표기로 기록할 수 없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로 기록한다. 수업대상, 관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물리적 여건, 관찰 시의 수업 분위기, 특이사항 등은 관찰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다. 서술이 빨리 이루어질 경우 중요 정보가 누락될 염려가 있으므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관찰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

•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관찰을 통하여 성취도를 평가할 때 다수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기록할 수 있어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된다. 말의 속도, 발음, 리듬, 학습된 어휘의 사용 여부, 적절한 씬이나 반복 등의 영어 사용에 대한 기록이나 학습 태도 및 참여 정도 등을 기록하기에 편리하다.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각 평가 주안점에 대한 평가 척도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말하기 평가의 예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관찰 체크리스트

관찰내용	Pass	Fail
말을 하고 있는가?	✓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
머뭇거림이 없는가?		✓

학습자에게 지나간 특정 요일에 한 일을 세 가지 적고, 짝에게 말해 보게 한 후, 주어와 과거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얘기하는 경우 ‘Pass’로 처리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교사가 돌아다니며 미리 정해 둔 번호의 학생들이 학습한 말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두세 시간에 걸쳐 하는 수업 초반부에 학생들이 5분 동안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특정 번호의 학생들만을 Pass/Fail의 간단한 카테고리만으로 관찰·기록하여 점검한다면 관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관찰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평가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평가의 기회를 많이 주되, 평가 결과의 처리는 간단한 것이 의사소통 평가로는 더욱 바람직하다. 가령 학습자가 써야 할 표현의 형태(문장의 예: I went swimming last Saturday. I met Mi-na there. We had a good time. What did you do yesterday?)를 제시해 주면 특정 문형에 대한 연습 혹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횡수 기록

특정 관찰항목이 발견될 때마다 기록하면 특정 부분에 대한 전체적이 유형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므로 편리하다. 아래 <표 III-3>와 같은 표를 만들어 관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횡수를 기록한다.

<표 III-3> 관찰 횡수 기록표

관찰 영역	활동 유형	횡수	총계
말하기 참여	교사 대 학생 전체 활동	/	1
	교사 대 학습자 개개인 활동	//	2
	학습자 대 학습자 활동	///	5
	소그룹 활동	/// /	6
	학습자 전체 활동	/// ///	9
	학습자 그룹 간 활동	/	1



IV. 영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과 목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비 고
구 성		○ 외국어 교과와 편제를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영어 작문’으로 구성	○ ‘영어 회화’를 ‘실용 영어 회화’와 ‘심화 영어 회화’로 분리 ○ ‘영어 독해’와 ‘영어 작문’을 통합하여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분리	○ 수준의 다양화 ○ 2기능씩 묶어 학습의 효율성 제고 ○ 영어과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반영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영어)	수업 시수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주당) - 3, 4학년 : 1시간 - 5, 6학년 : 2시간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주당) - 3, 4학년 : 2시간 - 5, 6학년 : 3시간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주당) 확대 - 3, 4학년 : 1시간→2시간 - 5, 6학년 : 2시간→3시간
	성격	○ 영어 필요성 ○ 초·중등 영어교육의 성격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영어 필요성, 영어 과목의 필요성 보강 ○ 수준별 수업 운영 권장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
	목표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최종단계의 영어교육 목표만 제시	○ 전체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 분리 ○ 명확한 목표 진술	○ 학교 급 별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
	내용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문장의 길이로 구분 ○ 학년별 어휘 - 초등 450낱말 내외, 7~10학년 1,250낱말 내외 - 전체 누계 1,700낱말 내외 [별표3] 기본어휘목록의 기본 어휘 수 : 2,067개 ○ 단계별(학기별) 성취 기준 구분 ○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성취 기준을 제시	○ 언어재료 중 문화 항목을 소재에 포함 ○ 학년별 어휘 - 초등 520낱말 이내, 7~10학년 1,290낱말 이내로 증대 - 전체 누계 1,810낱말 이내 [별표1] ‘소재’에 문화 내용 포함 [별표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조정 및 기능 추가 [별표3] 기본어휘목록의 기본어휘 수 증대 : 2,315개 ○ 중등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 위계 조정 ○ 성취 기준 하향 조정, 기본·심화 과정을 통합하여 제시 ○ 일부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 도입으로 내용 구체화 ○ 문자언어 도입 시기를 3학년 2학기 앞당기되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	○ 학년별 새로운 어휘수의 소폭 증대 ○ 의사소통기능 조정 및 예시문 수정·추가 ○ 기본어휘목록의 어휘수 증대 ○ 성취 기준의 학년별 제시 ○ 성취 기준상의 심화과정 내용 삭제 ○ 초등 문자언어 도입 시기 조정
	교수· 학습 방법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방법 제시	○ 교수·학습방법의 하위 항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구분 제시 ○ 수준별 수업의 학습 유형, 학습 활동, 집단 편성 등의 기본적 원칙 언급	○ 단계형·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삭제 ○ 학교 급 별로 교수·학습 방법 내용 제시 ○ 교수 학습방법 항목에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내용 제시

과 목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비 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영어)	평가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관련 사항 제시	○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분 ○ 평가 지침에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제시 ○ 평가상의 유의점은 초·중등학교를 구분하여 관련 내용 제시	○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관련 내용 삭제 ○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을 분리, 평가와 관련한 기본 내용 제시
선택 과목	영어 I, II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로 구분 ○ 과목별 어휘 - 영어 I : 2,300낱말 내외 - 영어 II : 3,000낱말 내외 ○ 과목별 4기능별 성취 기준 제시 ○ 대학 진학과 취업 고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심화 ○ 4기능 균형 평가 강조 ○ 암기 위주 평가 지양 ○ 평가 방법 예시	○ 언어 재료에서 문화를 소재에 포함하여, 소재, 언어, 어휘로 제시 ○ 과목별 어휘 - 영어 I : 2,000낱말 이내 - 영어 II : 2,800낱말 이내 ○ 각 과목에서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기능 성취 기준 수준보다 낮춤 ○ 일부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 도입으로 내용 구체화 ○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수업 강조 ○ 언어 기능별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강조 ○ 정의적 평가 요소 추가 ○ 표현 능력(말하기, 쓰기)의 평가 강조 ○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 강조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기능보다 낮춤으로써 학습부담 경감 및 학습효과 제고 기대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강화 ○ 학습의 효율성 강화 ○ 표현 기능에서의 수행평가를 권장
	실용 영어 회화	○ 영어 회화 - 수준 : 영어 I, II 보다 매우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 회화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1,200낱말 이내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심화 영어 회화	○ 영어 회화 - 수준 : 영어 I, II 보다 매우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 회화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1,800낱말 이내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독해 - 수준 : 영어 I, II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2,000낱말 내외 ○ 영어작문 - 수준 : 영어 I, II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 2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기함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독해와 영어작문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2,300낱말 이내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고려 ○ 학습의 효율성 제고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독해 - 수준 : 영어 I, II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2,000낱말 내외 ○ 영어작문 - 수준 : 영어 I, II보다 수준을 낮춤 - 어휘수 : 1,200낱말 내외	○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 2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습의 효율성을 기함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독해와 영어작문의 수준을 좀 더 다양화함 ○ 어휘수 : 3,000낱말 이내	○ 과목별 사용 어휘수 다양화 ○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어휘수를 가장 높게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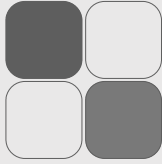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1997).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권오량 · 부경순 · 신동일 · 이진경 · 현석분 · 정양순. (2006).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정렬. (2003). *초등 영어 통합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렬. (2006). *초등 영어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렬. (2006). 초등 영어 교육과정의 지향점. *부산초등 영어교육학회 뉴스레터 2006-2*.
- 김정렬. (2006). 한국 초기 영어교육: 현 교육 체계와의 조화. *The Japan Association of College English Teachers*.
- 박약우. (1999). 초등4학년 영어 교재 분석 연구. *초등영어교육*, 5(1), 141-166.
- 박약우. (1999). 초등 영어 교재의 게임 분석 연구. *외국어교육*, 6, 223-248.
- 박약우 · 박기화 · 최진황 · 이소영. (2001).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 방안 연구. *초등 영어교육*, 7(1).
- 배두본.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부경순. (2003). 수업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본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58(2), 3-35.
- 부경순. (2003). 초기 영어교육이 초등 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 *초등영어교육*, 9(2), 123-148.
- 이길영. (2001). 영어교사 및 영어학습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비교-초등 영어교육과 연계된 중등영어교육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8(2), 57-78.
- 이돈희. (1996). 교육개혁의 구현과 교과교육. *한국교과교육학회 창립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
- 이완기 · 윤보경. (2003). 초등 영어 읽기·쓰기 교육의 적정성 연구. *초등영어교육*, 14(2),

- 이의갑 · 임찬빈 · 진경애 · 김진석 · 이윤 · 장경숙 · 김미경 · 이문복 · 최진황.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05-1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 임찬빈 · 진경애 · 김진석 · 이윤 · 장경숙 · 김미경 · 이문복 · 최진황.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2005-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화자. (1998).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어휘 선정을 위한 제안.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2), 5-24.
- 이화자. (1998).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자 언어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 *응용언어학*, 14-2.
- 전병만 · 박준언 · 유제명 · 최희경 · 정양순. (2006).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지민 외 13명. (200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03년-2006년 변화 추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연희 · 이정원 · 이완기 · 부경순. (2003). 중학교 영어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과 검증: 학생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1), 131-166.
- 허경철 외. (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 2005-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 박순경 · 이광우 · 이미숙 · 정영근 · 김진숙 · 민용성 · 김두정. (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 2005-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sher, J. J.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Los Gatos, California: Sky Oaks Publications.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hardt, E. B. (1991). *Reading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Theoretical, empirical, and classroom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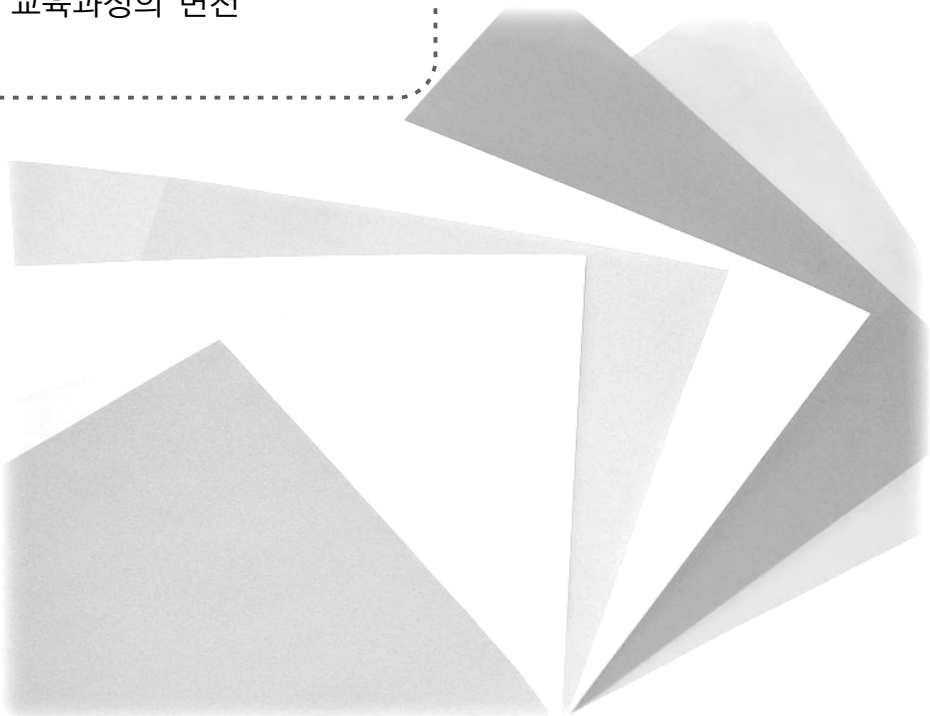
- Birch, B. M. (2002). *English L2 reading: getting to the bottom*.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irdsong, D., & Molis, M. (2001). On the evidence for maturational constraints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35-249.
- Blum, R. E., & Arter, J. A. (1996). *A handbook for student performance assessment in a era of restructuring*.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Brown,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 Byra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sment and pedagogy*.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Ferroli, L., & Shanahan, T. (1987). Kindergarten writing: Explaining the relationship to first-grade reading(pp. 93-100). In J. E. Readence & R. S. Baldwin (Eds.), *Research in literacy: Merging perspectives*. Rochester, NY: National Reading Conference.
- Graddol, D. (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British Council.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 Halliwell, S. (1992). *Teaching English in the primary classroom*. London: Longman.
- Mackey, W. H. (1967).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ann, V., Tobin, P., & Wilson, R. (1987). Measuring phonological awareness through the invented spellings of kindergarte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3, 365-391.

- McMillan, J. H. (2006).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 Morris, D., & Perney, J. (1984). Developmental writing as a predictor of first-grade reading achie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4, 441-457.
- Palmer, H. E. (1974). *The principles of language stu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sola, C. A. (1991). Culture in the elementary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24, 331-346.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waffar, J. K. (1991). Language learning is more than learning language: Rethinking reading and writing tasks in textbooks for beginning language study. In: F. F. Barbara (E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and the classroom*. Lexington, MA: Heath.
- Uhry, J. K. (1999). Invented spelling in kindergarten: The relationship with finger-point reading.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1, 441-464.
- Van Lier, L. (1996). *Input, interaction,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London: Longman.
- Vukelich, C., Christine, C., & Enz, B. J. (2002). *Teaching language and literacy: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2nd ed.)*. Allyn & Bacon



부 록

-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여 확정·고시한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계획이다.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다.

교육 목표 및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시대적 요구,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단계와 교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되며,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평가 등의 지침도 교과 특성에 맞는 교수법 이론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제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복합적 인간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영어과 교육과정은 내용 교과가 아닌 기능 교과로서의 특성도 크기 때문에 영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언어 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와, 외국 문화 이해 증진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발전 도모라는 언어 외적 목표로서의 정의적 목표를 교과 목표로 설정한 것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어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나 표현상의 차이, 혹은 강조하는 바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교육과정기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초등학교 영어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7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하의 내용은 주로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광복을 맞아 중등 보통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통합된 교육과정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으므로, 과도기적 임시방편으로 각 교과목별 분과주의에 입각한 교과 활동이 이루어

어졌던 시기이다.

영어과 교수요목은 I) 교수 요지, II) 교수 방침, III) 교수 사항, IV) 교수상 주의로 구성되며, 영어의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최소한의 교과 내용과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시간 배당은 주당 5시간씩 연간 약 30주로 계산하여 학년별로 약 150시간이며, 번역, 문법, 작문, 회화, 발음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국음표 문자의 학습, 음독(chorus reading)의 권장과 한영사전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 것 등이 특기할 사항이며, 발음 지도는 다니엘 존스(Daniel Jones)의 ‘발음 사전(The Pronouncing Dictionary)’을 표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 요목기의 영어과 학습 활동의 영향으로 축어적 번역에 의한 문법 수업의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4.20.)이 공포되면서 교과 분과주의가 지양되고 통합 원리에 의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이 잡혔다. 이에 따라 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교과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세분화되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수업 시수를 연 105~175시간으로 정하고, 교수 요목기의 불완전한 교과 내용과 지도 방법을 상세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과 내용의 상세화라기보다는 영어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장황한 진술에 그친 감이 있고, 잡다한 영어 교수법 이론의 개진으로 인하여 이론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상호 모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과 목표를 교양 가치와 실용 가치의 동시 추구에 두고 있으면서도 (1) 영어와 국어의 상이점 이해, (2) 문물제도의 상이점 체득, (3) 인류 상호 존중 의식의 고취, (4) 기초 영어 이해력·발표력 신장으로 설정하여 언어 기능적 목표보다 정의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듯한 진술 방법상의 미숙을 드러내고 있고, 의사소통 능력보다 영어에 관한 지식 습득이 되풀이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표준 영어로 미국 영어를 택한다고 최초로 언급한 것이 특기할 점이며, 어휘 통제를 시도하여 중학교 1학년 400 낱말 내외, 2학년 500 낱말 내외, 3학년 600 낱말 내외를 학습 목표로 제시하였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이라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자주적이고 능률적인 새 인간상 정립을 위하여 합리적 사고가 강조되고 생산성,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기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간결한 표현과 논리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Ⅰ) 목표, Ⅱ) 지도 내용, Ⅲ)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조직되었다. 목표는 2개 항의 기능적 목표와 1개 항의 정의적 목표로 구성되었고, 지도 내용은 1) 듣기와 말하기, 2) 읽기, 3) 쓰기의 형태를 갖추었다.

특히, 읽기에서 신어의 수를 1학년 300~400(350) 낱말, 2학년 350~450(400) 낱말, 3학년 400~600(500) 낱말, 계 1,050~1,450(1,250) 낱말로 정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각 교과 목표의 종합적 달성에 역점을 두고 듣기와 말하기의 구두 훈련을 중시하였다.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 체계를 구조화하고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 영어과 교육 과정은 가) 교과 목표(일반 목표와 학년 목표로 구분), 나) 내용(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로 구분), 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재료에 문형·문법 사항란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문형의 표시, 성분의 구조, 문장의 종류, 어형 변화 등 상세한 문법적 기술을 첨부하고, 학년별 사용 어휘 수는 1학년 300~350 낱말, 2학년 350~400 낱말, 3학년 400~450 낱말이며, 제시되는 단일 문장의 길이를 1학년 10 낱말, 2학년 15 낱말, 3학년 20 낱말 이내로 제한한 것이 특기할 일이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문법 설명 위주의 교수법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시된 문형, 문법상의 제약 조건 때문에 학교 수업을 문법 설명 위주로 일관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복합적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국정 지표에 맞추어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아 있는 생활 영어 구사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키되, 대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강조하였다.

주당 시간 배당은 중학교 1학년 4시간, 2, 3학년 3~5시간으로, 종래의 2, 3학년 2~5시간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였다.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에서는 종래의 언어 기능적 목표와 언어의 외적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되 언어 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를 외국 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정의적 목표보다 우위에 두었으며, 특히 대화 능력 배양을 중시하고 있다.

지도 어휘 목표량은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로 축소 조정하여 학습 부담을 가급적 경감하였으며, 학년별 문형·문법 사항을 학습 내용에서 분리하여 별표로 제시하고 필수 지도 조건에서 참고 사항으로 완화하여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대화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종래의 영·미어의 구별, 문장 내의 사용 어휘 수 제한, 발음 기호 사용 등의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제거하여 지도 교사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살아 있는 생활 영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인쇄된 발음 기호를 통한 발음 지도보다 영·미인의 정확한 청각 자료에 의한 발음 지도를 강조하고,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혀 발음할 수 있는 음철법(phonics)의 지도를 권장하고 있다.

교과 지도의 효과가 평가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데에 유의하여 평가상의 유의점을 신설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기 시작했다. 곧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1981년 10월)에 따라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의 경우에 학년 구별없이 특별 활동으로 주당 1시간씩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발표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영어 특별 활동 운영 지침에서는 국민학

교 영어 지도의 과정을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용이하도록 조기에 영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중학교 영어 교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준비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조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영어 교과의 목표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두고 있다. 영어 교과 목표의 특징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대등하게 두지 않고 전자를 후자에 종속되는 관계로 설정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체계는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당 시간 배당은 1학년 4시간, 2학년 3~5시간, 3학년 3~5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어휘 목표량은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이며, 교수요목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 기초하고 있다.

각 학년별 내용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였으며, 1학년에서는 구두 언어를 중시하고 차차 문자 언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의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영어 교과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교육과정의 체계는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로 되어 있으며, 제5차 교육과정과의 큰 차이점은 ‘성격’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주간 시간 배당은 각 학년 공히 4시간씩이며, 지도해야 할 기본 어휘 수는 1학년 300 낱말 내외, 2학년 350 낱말 내외, 3학년 400 낱말 내외로 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한 문장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문장에 10 낱말 이내, 2학년은 15 낱말 이내, 3학년은 20 낱말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탈피하여 개념·기능 교수요목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언어 기능을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지 않고 이해 기능(듣기, 읽기)과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해 기능을 학습한 다음에 표현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에서 평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제5차 교육과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의 경우,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이 개편, 고시되면서 1995년부터 영어는 학교장 재량의 선택교과로 승격되었고, 1995년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활동과 과업 중심의 영어교육,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이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적용되며 같은 학년 학생들의 진로를 똑같이 유지하되,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은 심화 학습을, 느린 학생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며 각 단계의 말에 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학생만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한다.
-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3학년에 적용되며 학생들은 자

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수준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적절히 절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했다.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³⁾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이 아닌 수시 개정으로 처음 제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지식 정보화, 다매체·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도입 및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 개선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배경이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 수준별 수업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 과목 간 수준별 차별화로 학습자의 진로와 특성(능력, 적성, 소질)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 설계를 강조하였다.

둘째,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 급 및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택 과목 간에 진로별 특성을 반영한 계열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내용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초등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조정하고 초등 문자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재조정하되 문자 언어 수준은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등 영어의 경우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하고 그 내용의 위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기본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

3) 2007년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2.28)되었으나,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2006년에 개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호-75호, 2006.8.29)되었고,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이 2008년에 개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2008.12.26)됨.

육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 지침’과 더불어 초·중등학교급으로 구분된 ‘평가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를 3·4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5·6학년의 경우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2009년 8월 31일 초판 인쇄

2009년 8월 31일 초판 발행

저작권자
발행 교육과학기술부

인쇄 한솔기획

1950. 11. 1. 등록 제16-67호